





2 · 0 · 0 · 8 · 년 · 천 · 수 · 만 · 주 · 변 · 의 · 민 ·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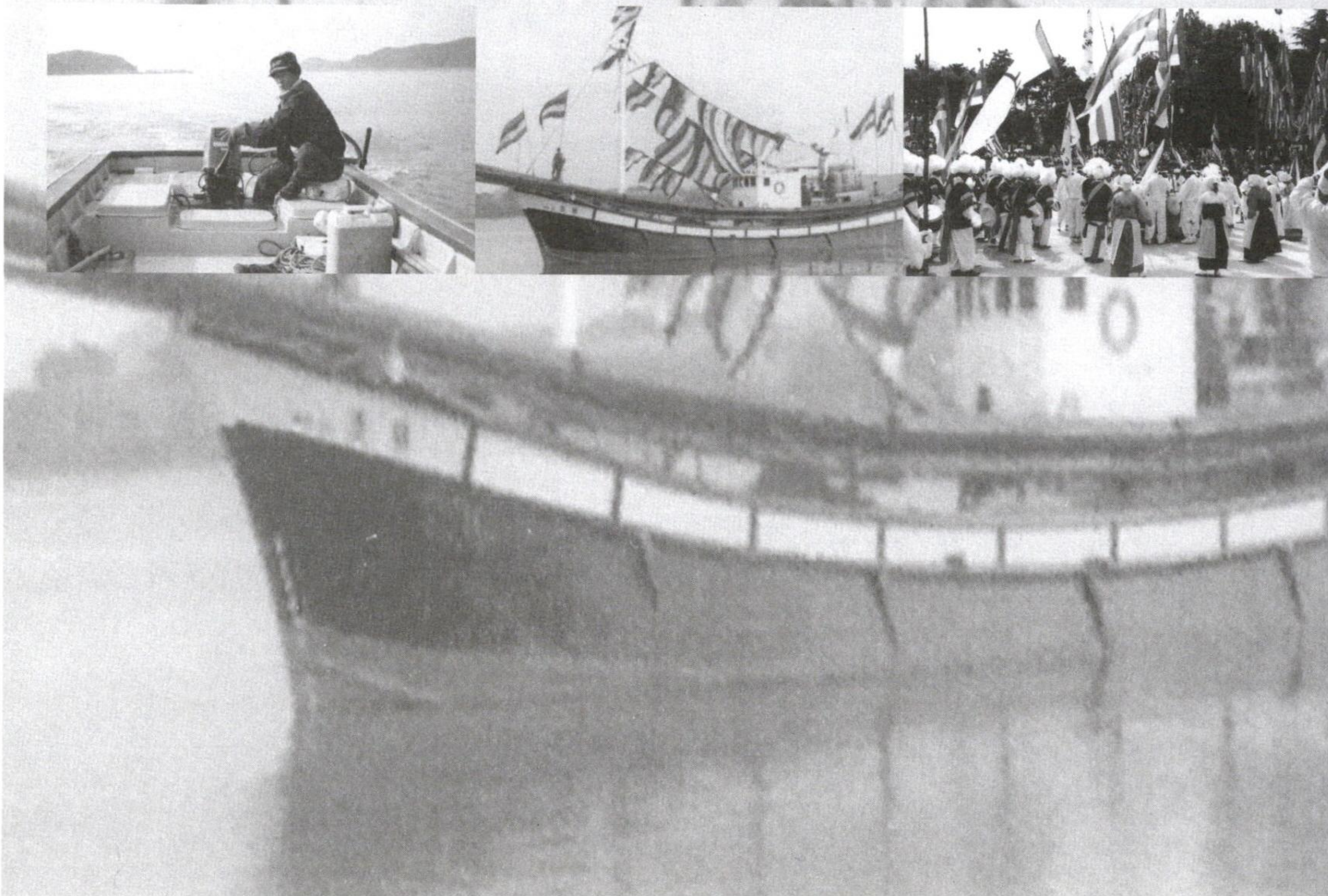
#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어제와 오늘





# Contents\_

2008년 천수만 주변의 민속

##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어제와 오늘





04	1. 흥성군 마을 공동체 신앙의 개황
05	2. 수룡동 마을의 위치 및 유래
08	3. 수룡동 마을의 역사·문화적인 배경
10	4. 수룡동 사람들의 삶과 문화
12	5. 수룡동 당산풍어제
	1)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유래와 전개과정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3) 당산풍어제의 목적과 당의 신격(神格)
	4) 당산풍어제의 절차와 구성
	5) 제전(祭前)의 준비 과정
	6) 제의 과정
30	6. 수룡동 당산풍어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
31	7. 수룡동 당산풍어제를 지키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
34	8.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의미와 특징
37	9. 사진으로 보는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어제와 오늘
	1) 196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모습들
	2) 2007년의 모습들

\* 참고문헌

## 천수만 주변의 민속 → 홍성군 마을 공동체 신앙의 개황

우리주변에 전하고 있는 민속 중에서, 정초에 주로 이루어지는 민속행사로는 마을공동체 신앙을 꼽을 수 있다. 마을 공동체 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마을신당에 모셔놓고, 액(厄)을 물리치고 복(福)을 불러들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이다.

홍성군의 마을공동체 신앙에 관한 조사(최운식·김정현, 홍성의 마을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8)에 의하면, 옛날부터 홍성군의 각 마을에서 마을공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곳은 50개 마을이었다. 이 중에서 조사당시까지 제의를 계속하고 있는 곳은 19개 마을이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우리주변에 전해지던 많은 민속 문화가 사라지면서 마을공동제의를 지켜오는 마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8년 현재, 마을공동제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옛날에는 마을전체가 축제처럼 행해지던 마을공동제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참여하는 연령층도 노인들 위주로 행해지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통문화를 지켜오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뜨면서 마을공동제이도 그 명맥이 끊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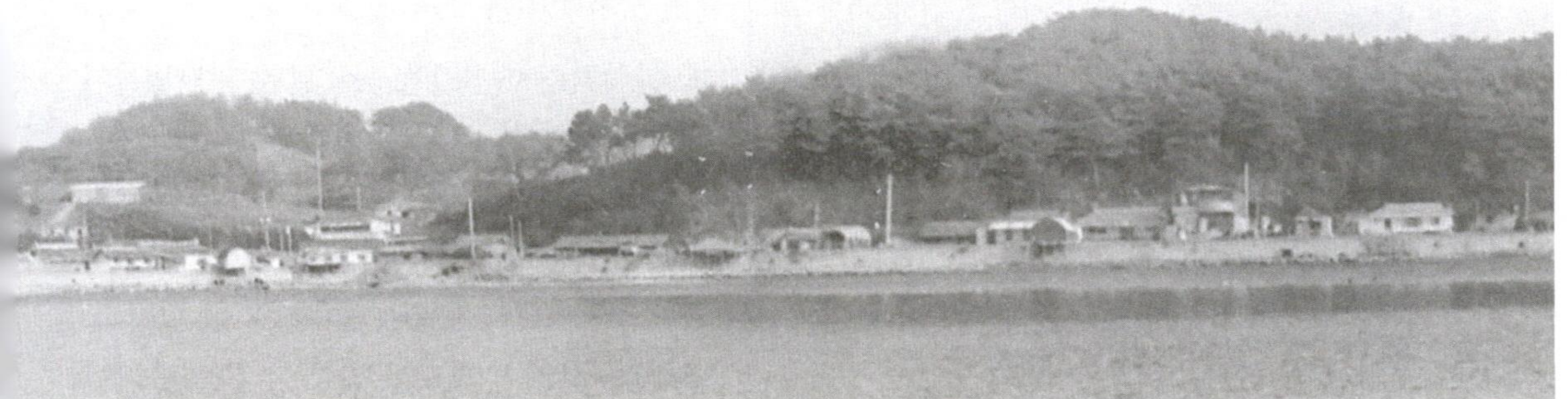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도 마을공동제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마을과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는 수룡동의 당산풍어제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수룡동 마을의 위치 및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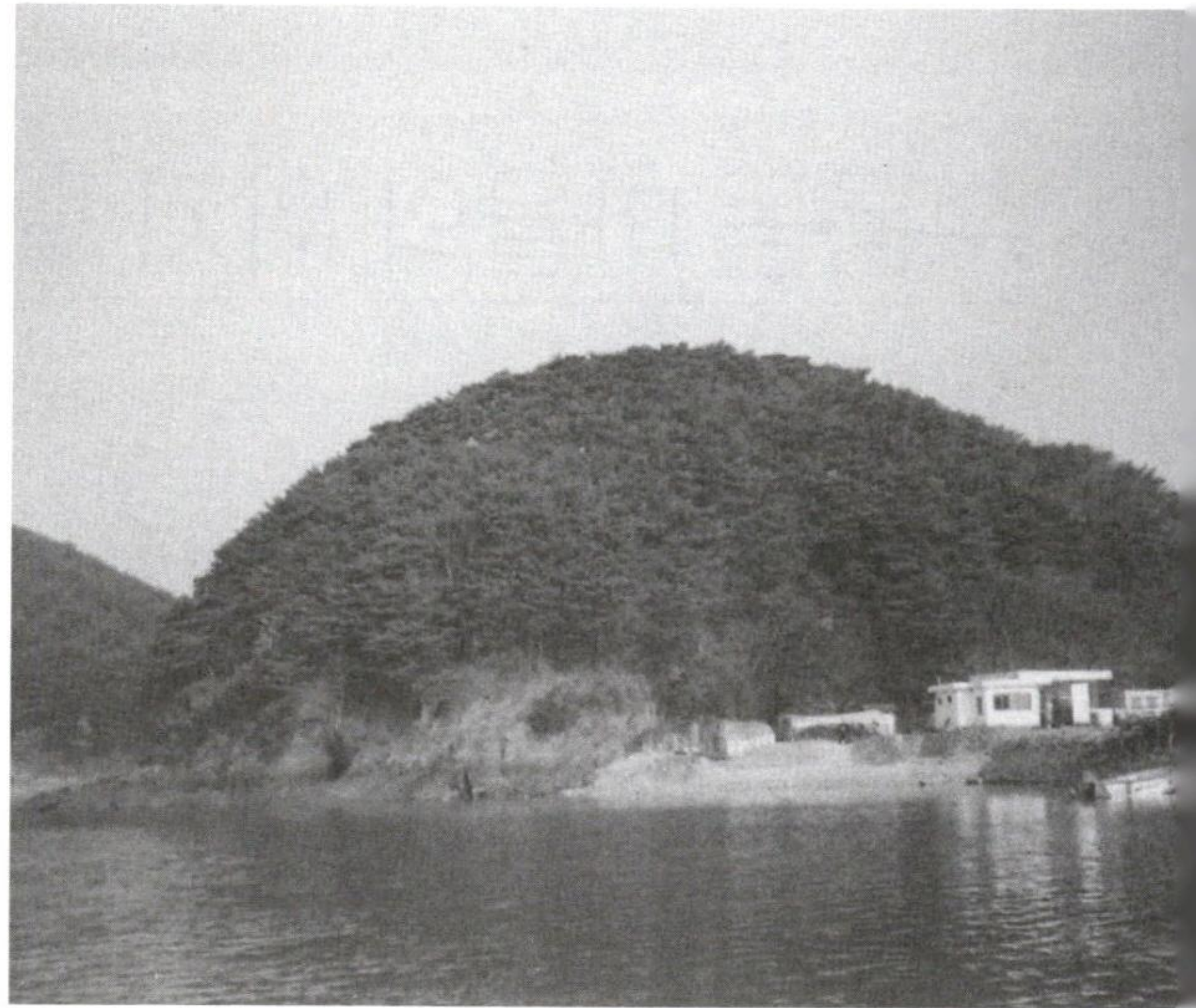
수룡동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건너편으로는 서해의 보고인 천수만이 펼쳐져 있고 서부면 남당리와 결성면 성호리가 좌우로 연결되어 있다. 마을 앞으로 마주보이는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를 통하여 바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위도상으로는 동경 126°30'12", 북위 36°32'10"에 위치하고 있다.

수룡동은 2001년 홍·보지구 사업으로 인한 방조제 조성으로 앞바다가 막히기 전까지는, 갖가지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촌 마을이었다. 마을앞 바다는 전후좌우로 야트막한 야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마치 호수 같은 모습이었다. 천수만에서 육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주변경관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포구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했다.

수룡동을 옛날에는 배를 만들고 정박시키는 곳이 있었다 하여 '선소(船所)'라고 불렀다. 그후 '수룡구지(수룡구지, 음용곳, 수음곳 등으로도 불렀음)'라 부르다가, 일제 때인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수룡동(水龍洞)으로 개명되었다.



수룡동이란 지명은 풍수지리와 관련이 깊다. 마을의 형태가 마치 용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물가에 사는 용(龍)처럼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당산이 있는 곳을 용의 머리로 보고, 마을회관이 있는 쪽을 용의 꼬리 쪽으로 본다고 한다.



수룡동에서는 해마다 당산풍어제를 지내오는 당산(堂山)을 신령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신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수룡동 마을의 지명으로는 용골, 벚재너머고개, 건너끝고개, 돌곶, 뺨, 위치동, 아래치동, 도랑묘지, 염벚, 농과, 삼굿마당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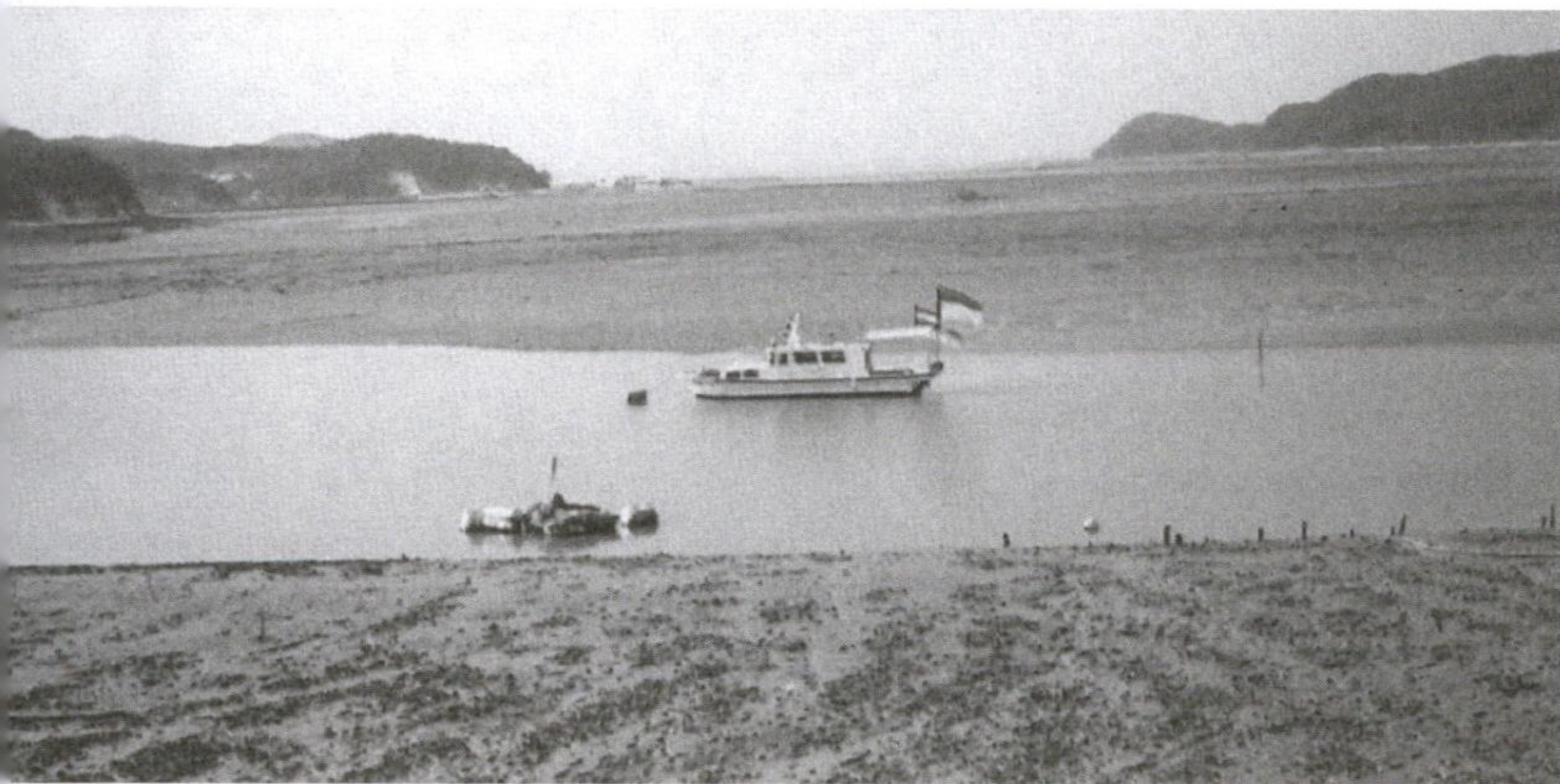
용골은 마을입구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형태가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벚재너머고개는 마을 안쪽에서 용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름이다. 옛날에 마을앞 바다 뺨에서 바닷물이 나가면 토염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 토염을 채취해서 소금을 만들던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안쪽에서 벚재너머 고개를 넘으면 용골이 나온다.



건너끝 고개는 마을 해변도로를 끼고 성호마을 쪽으로 통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정기노선 버스가 지나다닌다. 이 건너 끝 고개와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해변가에는 옛날에 피난민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위치동은 수룡동 앞에 있는 바다를 말한다. 이곳은 수룡동 주민들이 굴양식 등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던 곳이다.

아래치동은 수룡동 선착장 오른쪽으로 있는 바다를 말한다. 이곳도 위치동 못지않게 굴양식 등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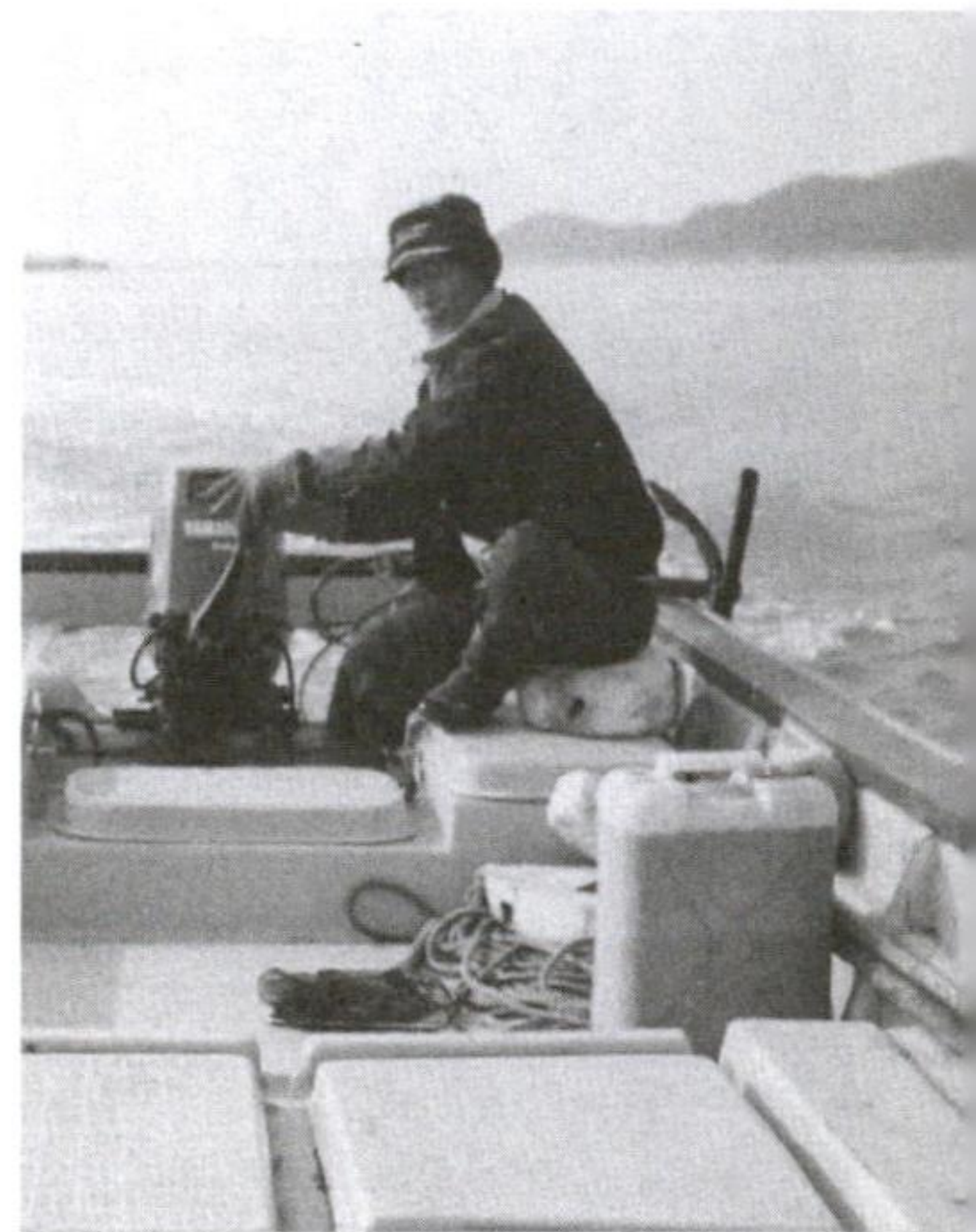


곳이다.

도량묘지는 수룡동 뒤쪽의 아담한 솔숲 속에 몇 기의 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마당은 마을 가운데에 있는 마당이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옛날에 공동작업을 했다고 한다. 돌곳은 마을 뒤쪽에 있는 당산너머 마을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 지명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있다. 홍·보지구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수룡동 앞으로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각종 해산물이 풍부했으며 여러 척의 배가 정박하는 어촌마을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마을 앞 바다는 담수호로 변해있으며, 아스팔트길이 마을 앞을 가로지르고 있다. 지금 현재 수룡동은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겪으며, 상당부분 옛모습이 없어지면서 지명만 남게된 곳이 많다.





## 수룡동 마을의 역사 · 문화적인 배경

### 1) 군사적인 요충지

수룡동의 마을형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역사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대략 700여년 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룡동은 고려부터 조선초기까지는 결성현(結城縣)에 속해있던 지역이다. 조선말에는 결성군(結城郡) 하서면(下西面)이었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판교리 묵동(墨洞), 선소리(船所里), 후동(後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판교리라 하고 홍성군 서부면에 편입시켰다.

수룡동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결성현의 수군(水軍)이 주둔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결성군지』(1994.1.3일 발행)에 의하면 수룡동은 조선조 때 선소(船所)와 선창이 있었고, 결성현의 수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수군 주둔 시에는 방선(防船)과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이 각 각 주둔했으며, 수군 군기고(水軍軍器庫)와 짐물고(什物庫)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려 말에는 삼별초군이 이곳 수룡동으로 들어와 결성 감무를 잡아갔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렇듯 수룡동은 해안에 접해있으면서 바다와 육지를 잇는 관문으로서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한 곳이다.

## 2) 항구로서의 기능

수룡동은 해산물이 풍부하여 옛날에는 인근 항구들과 함께 해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수룡동은 1969년부터 판교항이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1종항으로 승격되어 정부의 투자도 활발했었다. 인근 해안에서는 최대의 안간망 어선을 소유한 항구로 발돋움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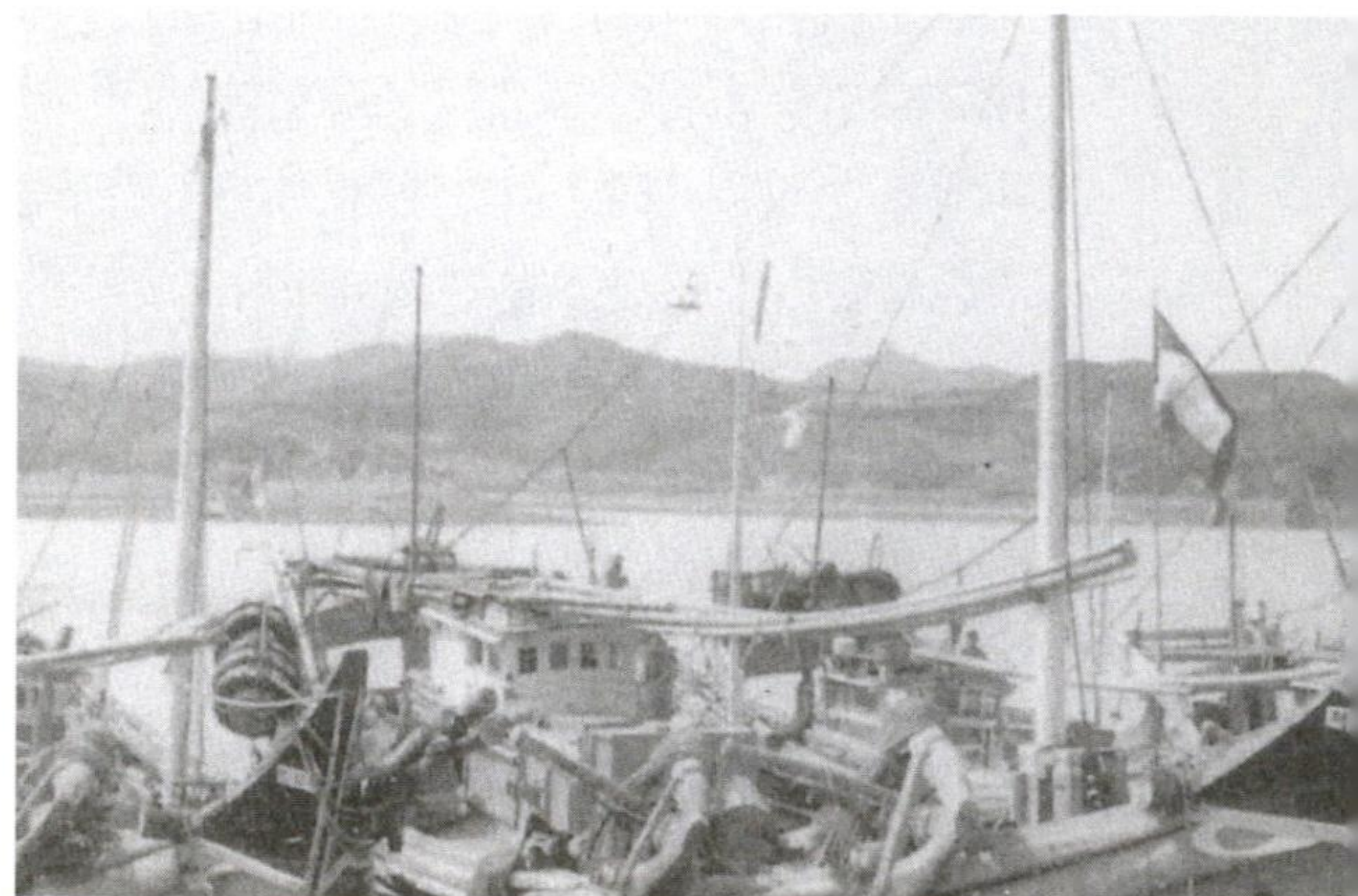


하지만 항구 자체가 협소한 관계로 대형항구로 발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형선박들은 인천이나 군산 등에서 정박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선박업주들이 타 지역에 출장소를 두고 운영하기도 했다. 점차 선박들이 대형화 되고 어구들이 최신장비로 바뀌면서 지리적으로 협소한 판교항은 그 수요와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염장시킨 고기보다는 인조빙이 생기면서 냉동시킨 고기가 상품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수룡동으로 몰리던 어업원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기 시작하며 3종항으로 격하되어 조그만 어촌마을로 남게 되었다.

수룡동이 옛날의 풍부했던 해산물 집산지와 항구로서의 기능은 쇠퇴했어도, 천수만의 풍부한 어장과 수산자원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큰 소득원이었다.

수룡동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는 보령과 천북을 잇는 홍·보지구 방조제 사업이었다. 2001년에 홍·보지구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수룡동은 더 이상 포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을 앞 갯벌은 육지가 되었고, 마을 앞에 넘실거리던 바다는 담수호로서의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수룡동 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룡동 사람들은 바다가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바다를 주 생업현장으로 살아왔다.

수룡동 사람들은 바다가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바다를 주 생업현장으로 살아왔다.

수룡동의 인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대수가 80가구를 넘었다. 그후 1980년에는 73가구로 줄어들었고, 인구는 389명(남자 184명, 여자 205명)이었다. 1990년 12월에는 58가구로, 인구는 212명(남자 99명, 여자 113명)이었다. 10년이 흐른 2000년 초에는 총 가구수가 47호에 인구가 135명(남자 61명, 여자 74명)으로 줄어들었다.

수룡동은 50여 년 전 안강망 사업이 활발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돛배가 인근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안강망 어선도 많이 소유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령층이 높아져 고령화 추세를 보임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건너편 천북면 장은리로 어업 터전을 옮긴 상태이다.

한편 수룡동은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두 어촌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 하나는 수룡동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이고, 또다른 하나는 황해도 지역에서 1951년 1·4후퇴 때 피난 온 180여명의 이주민들이다.

황해도에서 1·4후퇴 때 수룡동으로 피난 와서 지금까지 살고있는 김관은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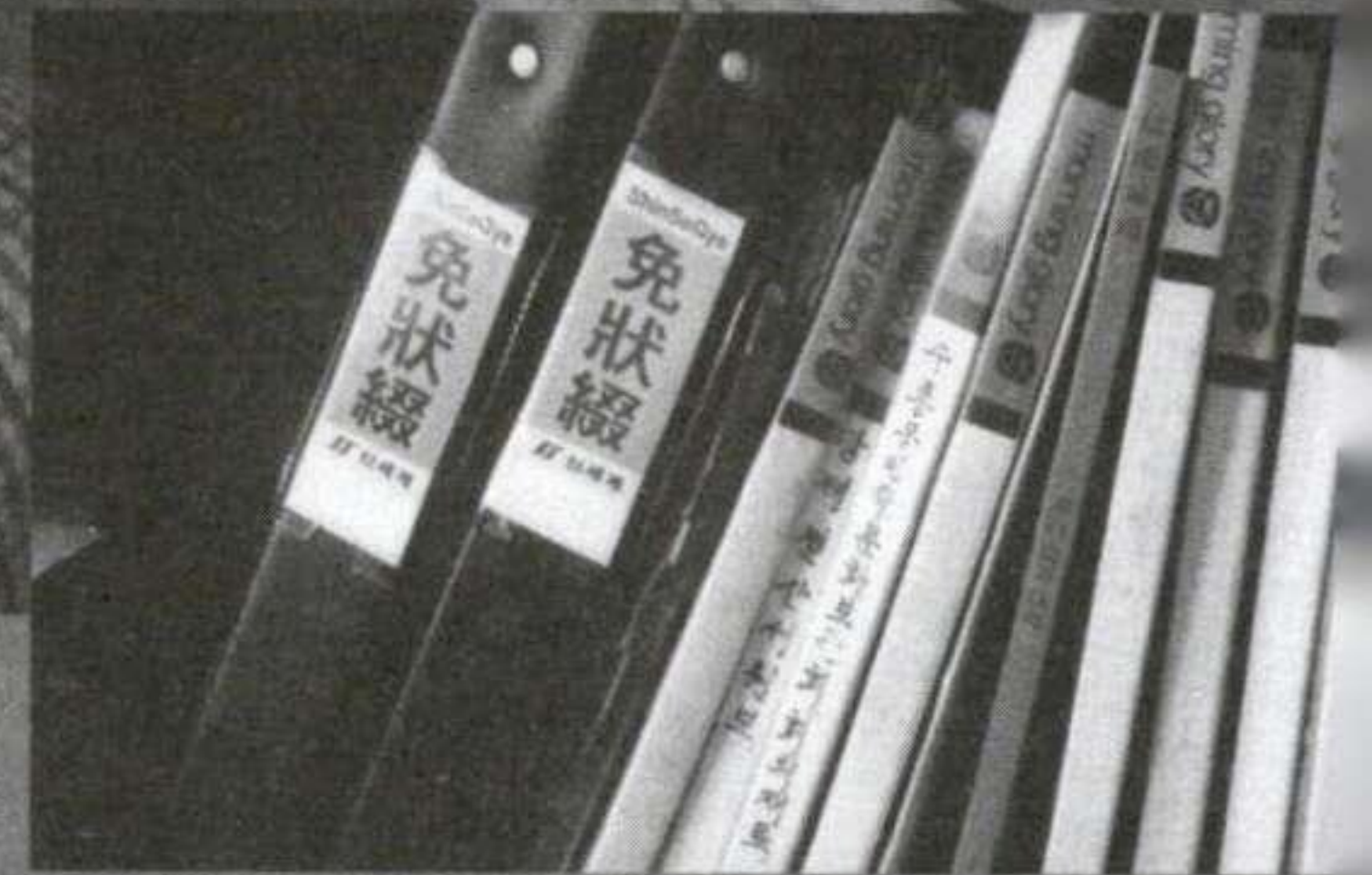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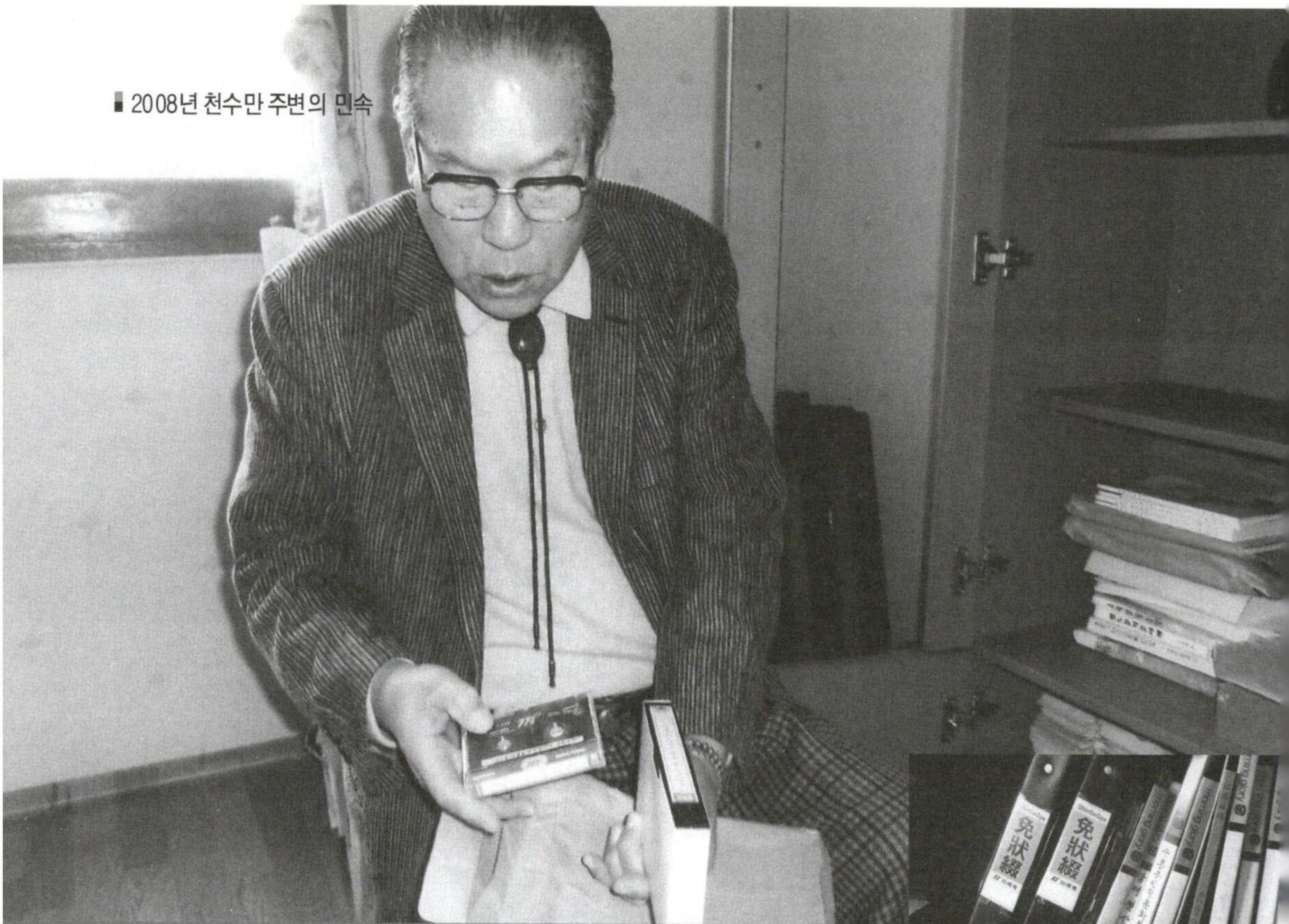
'지금 기억에 의하면 배 5,6척 정도였던 것 같다. 배에 탑승했던 인원은 120여명 정도였다. 황해도 웅진에서 가족들을 싣고 출발한 피난민선은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어디라고 정해놓은 곳도 없이 남쪽으로 무작정 항해를 했다. 그렇게 며칠동안 항해를 해서 닿은 곳이 바로 수룡동이었다. 후에 몇 십 명이 추가로 도착하여 모두 약 180여명의 피난민들이 수룡동으로 모여들었다.

이는 당시 수룡동 인구와 비슷한 숫자였다. 그당시 집단으로 서해안가에 피난 온 주민들은 수룡동이 제일 많았다. 이를 알고 충청남도청에서는 구호미를 전해주기까지 했다.

북쪽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12월 20일 경이었다. 갑자기 180여명의 피난민들을 맞이한 수룡동 주민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집집마다 빈방이 있으면 피난민들을 위해서 모두 내놓았다. 그렇지만 갑자기 몰려든 피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방이 부족했다.

이곳 주민들은 피난민들이 밖에서 추운 잠을 자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뜨거운 도움을 주었다. 수룡동 뒤에 자리잡은 당산 쪽과 마을입구 해안도로가에 움막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엄동설한에 땅이 푹푹 얼어서 삽질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돌덩이처럼 언 땅을 장작불로 녹여가며 땅을 파고 움막을 지었다.

피난민들은 엄동설한에 춥고 배가 고팠어도 수룡동 주민들의 따뜻한 동포애로 인해서 힘든 피난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지금도 이곳으로 피난 왔던 1세대들은 그 당시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후 수룡동은 피난 1세대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 수룡동 당산풍어제

수룡동은 태어난 지역과 살아온 문화가 다른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장단점을 잘 융화시키면서 마을을 발전시켜왔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문화가 수룡동 마을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당산풍어제'이다.

이관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씨는 두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온 수룡동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관호, 수룡동 당제 조사보고서, 수룡동민속문화보존회, 2001)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피난선을 타고 이곳 수룡동에 정착하였는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에서 마을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관은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산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도 신망을 얻어 이 마을에 정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마을의 어른으로써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 서부 해안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갈 수 없는 곳인 황해도의 생활문화를 동시에 엿볼 수 있음은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매우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문화적으로도 수룡동은 충남 서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해를 배경으로 싹튼 해양성내륙문화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많은 문화량을 소유하고 있다. 즉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여유와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고기잡이를 나가면 자연스럽게 배치기 노래를 불렀고, 마을에서는 이들을 위한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뱃고사 등이 치러졌다.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등 외래종교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수룡동 사람들은 이러한 외래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형태를 계승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당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산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당제의 존속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는데 반하여 수룡동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당산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있어 이러한 갈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수룡동의 경우 급격한 주변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전통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현재 수룡동은 홍성 서부와 보령 천북을 잇는 홍보 지구 방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포구로씨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홍보지구 방조제가 가로막히면서 바다가 아닌 담수호로써 선착장만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 푸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수룡동 사람들은 수백년동안 대대로 내려온 생업터전과 전통문화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포구가 없어지면서 생업터전을 홍보지구 방조제로 이동하여 어로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은 물론, 근대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신시하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당제를 옛모습 그대로 보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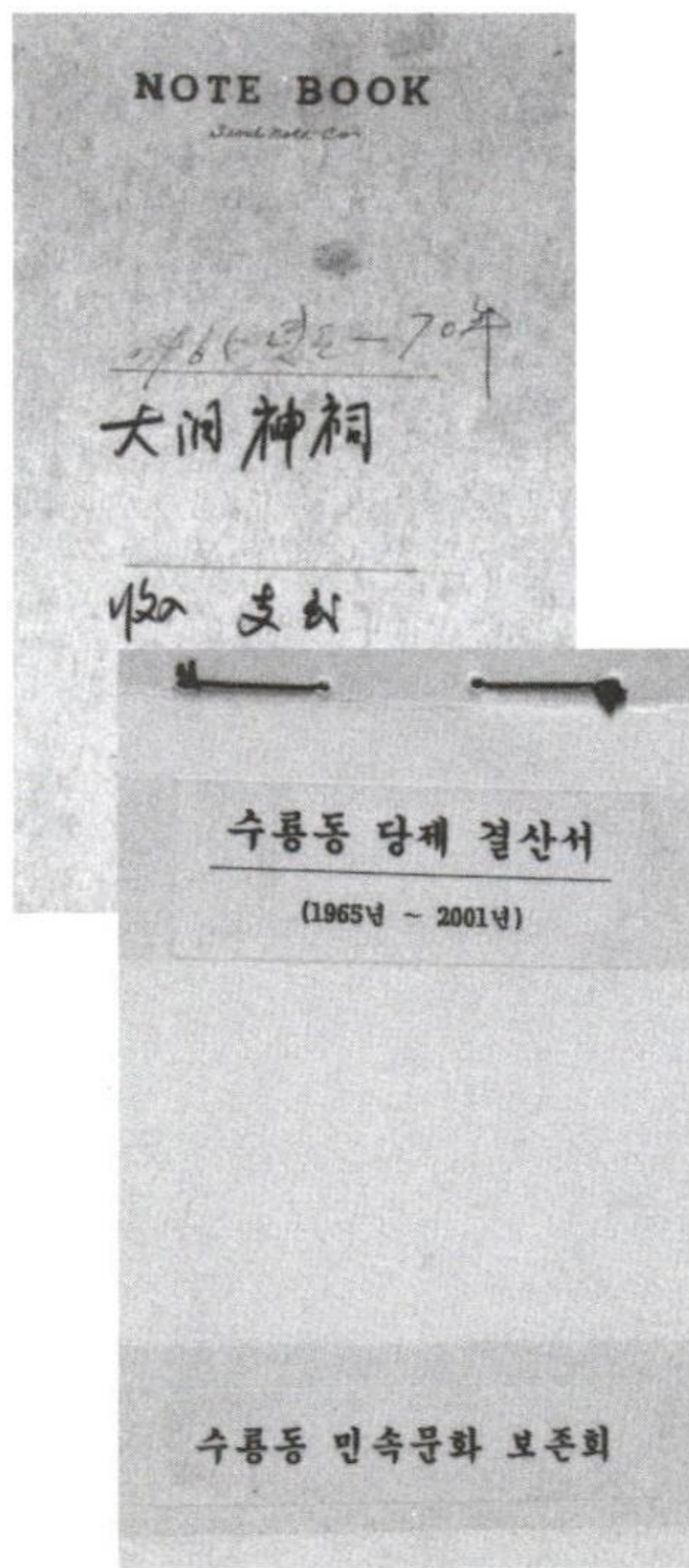
### 1)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유래와 전개 과정

수룡동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껏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월보름날 서해바다를 지키는 용왕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풍어제를 지내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수룡동에서 당산풍어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산풍어제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대략 400년 내지는 5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구전과 함께 조선시대 이곳에 선창과 수군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역사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룡동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공동 소유의 당산에서 마을 공동으로 서해의 용왕신에게 당산풍어제를 올리고 있다. 그 믿음과 열정 또한 매우 대단하다. 현재 수룡동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당산풍어제에 대한 믿음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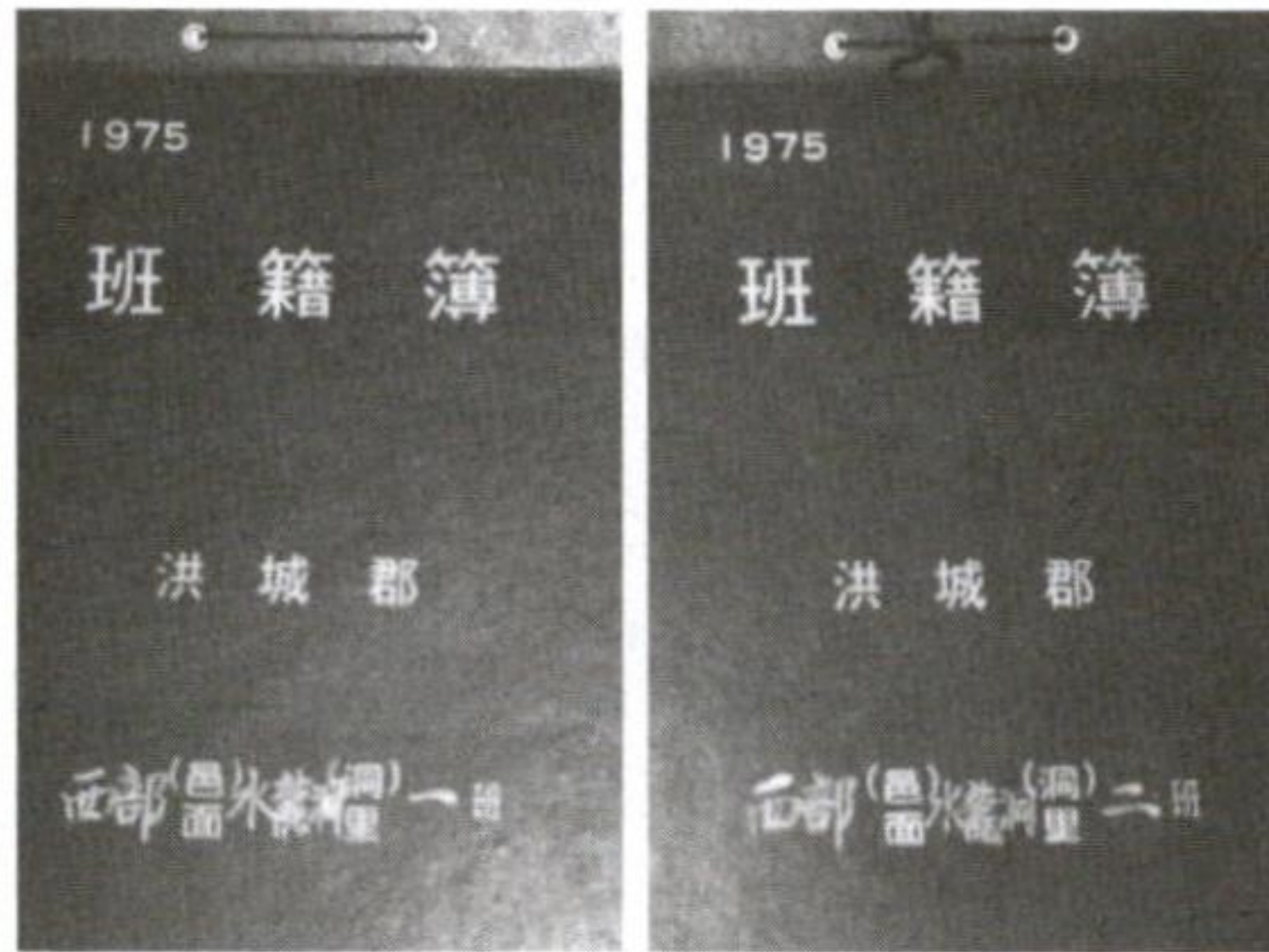
이러한 당산풍어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각종 기록과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당산풍어제를 지낼 때 사용한 지출내역과 걸립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는 당제 물목기(物目記)와, 마을의 변천모습 및 당제 진행과정 등을 담은 사진자료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마을규모, 어선현황, 당시의 경제상황, 당제 참여도, 당제의 규모 등 마을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들로 순수한 애향심과 당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모아진 자료들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50여 년 전 농어촌 사회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직전 또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모아놓은 것들로, 당시 당산풍어제의 전승모습을 고증하고 계승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여기 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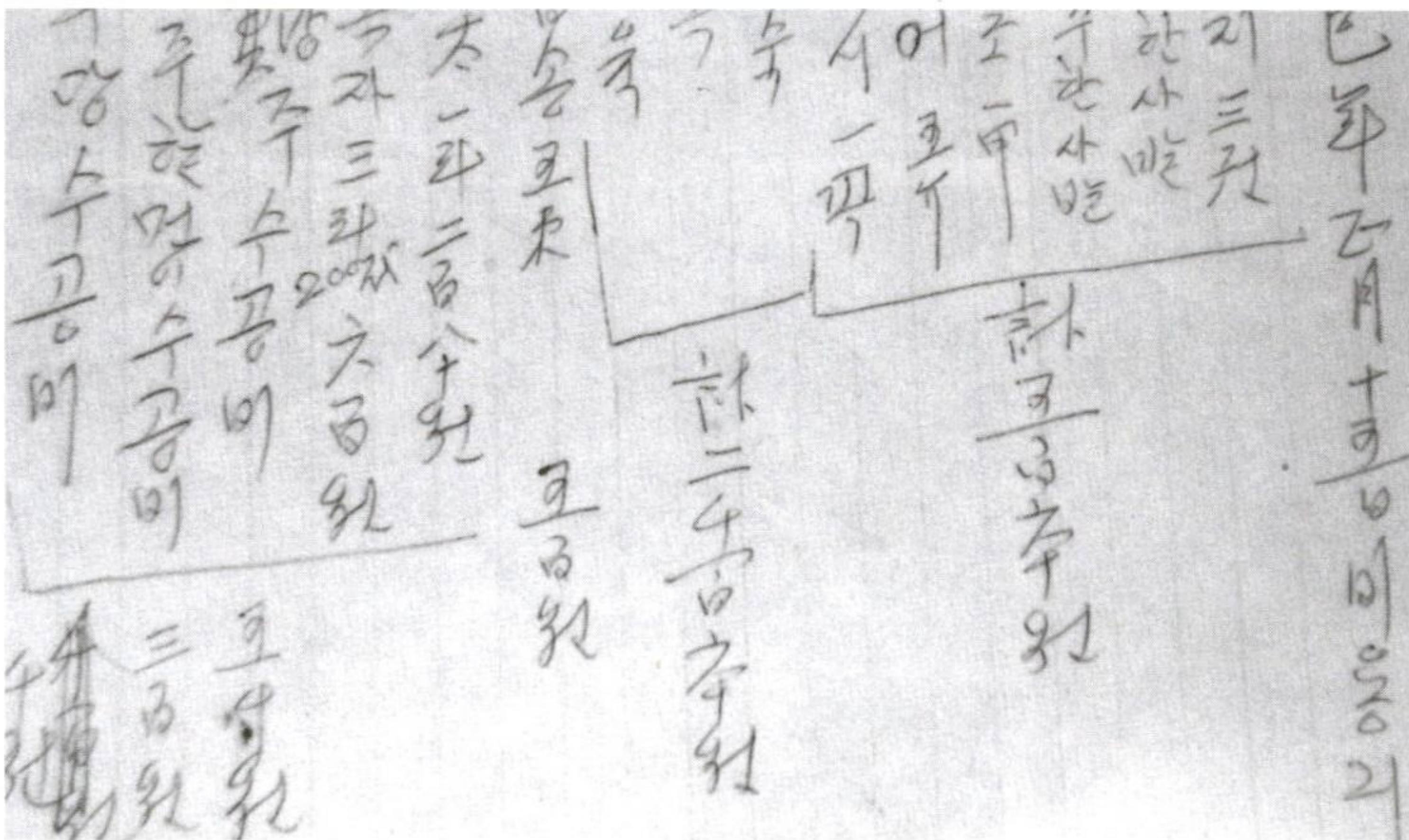
HITEL

1.	김병진	자	김홍배
2.	최치경	자	최병문
3.	한상규	자	한홍림
4.	김성춘	자	김병말
5.	이재영	자	이동재
6.	김성준	자	김팔영
7.	김창근	자	김종석
8.	최병문	자	최복길
9.	김종기	자	김기태
10.	김금동	자	김광태
11.	김창석	자	김용용
12.	김성준	자	김팔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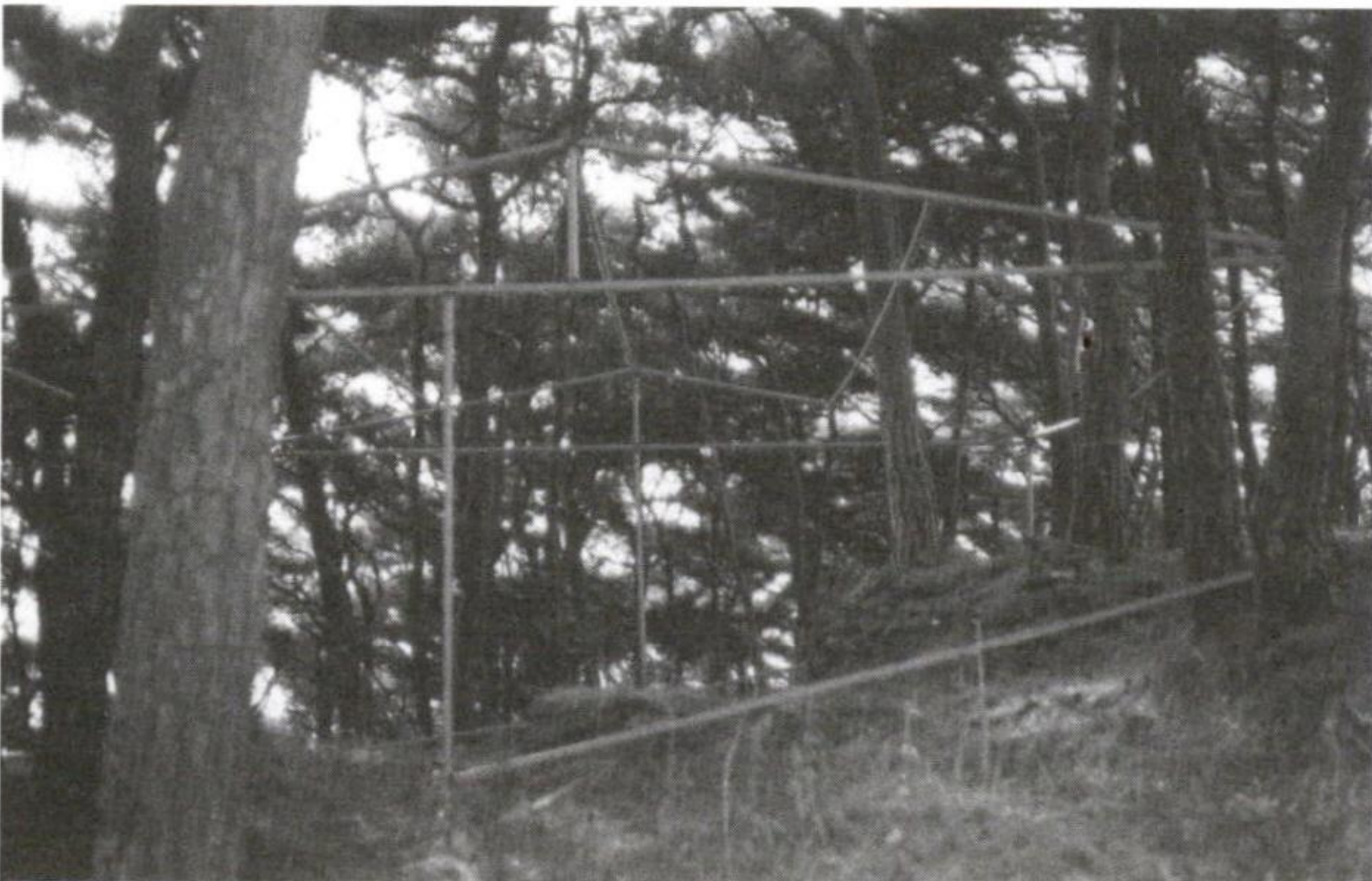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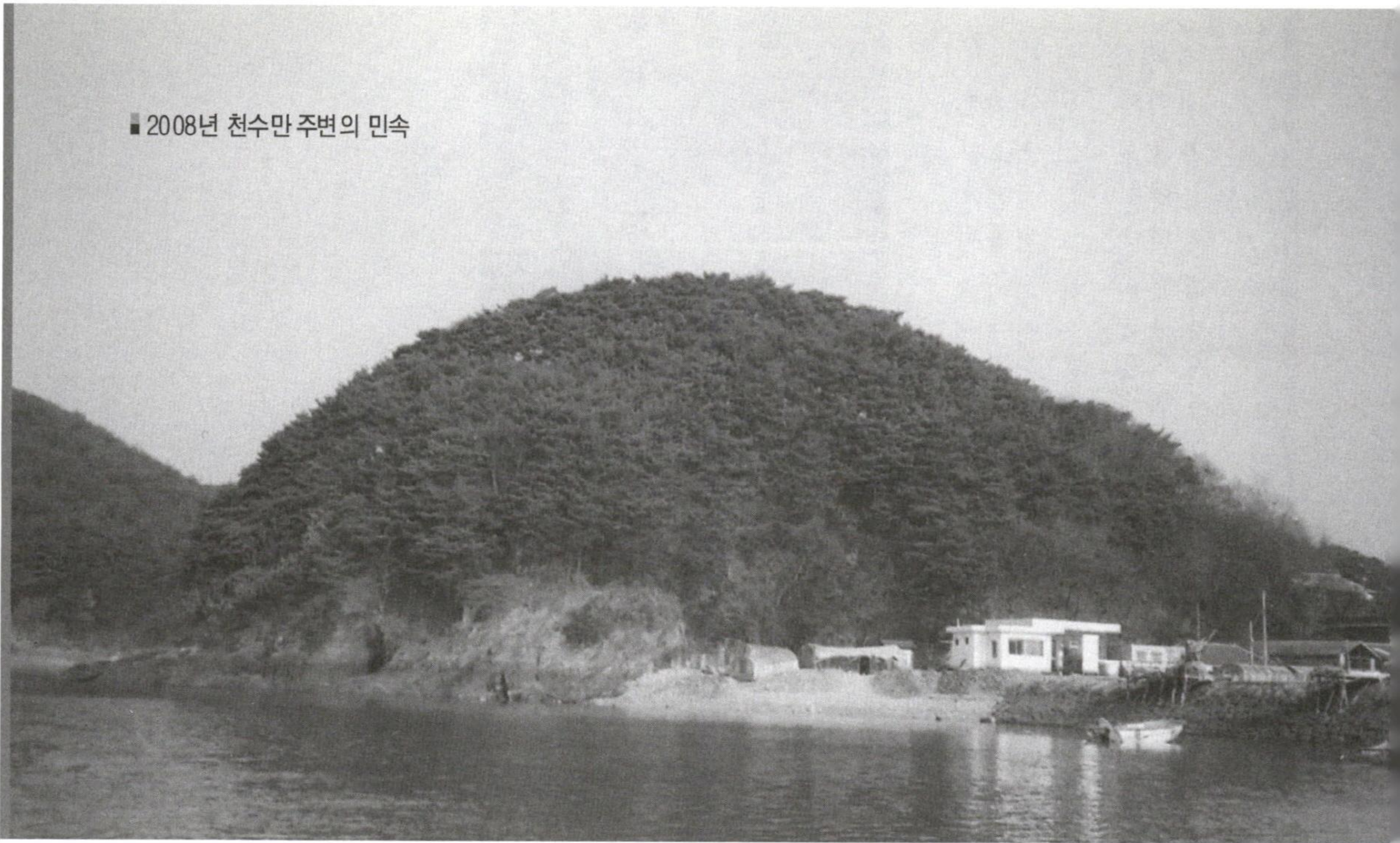
한편 근래 들어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된다. 6·25 전쟁 당시에 황해도에서 피난 온 이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황해도식의 당제를 자연스럽게 전해주었으며, 이곳 원주민들 역시 이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즉 충청도식 제의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당산풍어제의 규모와 웅장함, 그리고 배치기 노래의 리듬 등, 황해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현상들을 조금씩 보탬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당산풍어제가 지금껏 치러지고 있다.

특히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경우 아직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자료이다. 이를 발굴하여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으며 서해안 당산풍어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한 채 전승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민속문화이다. (이관호,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2008년 천수만 주변의 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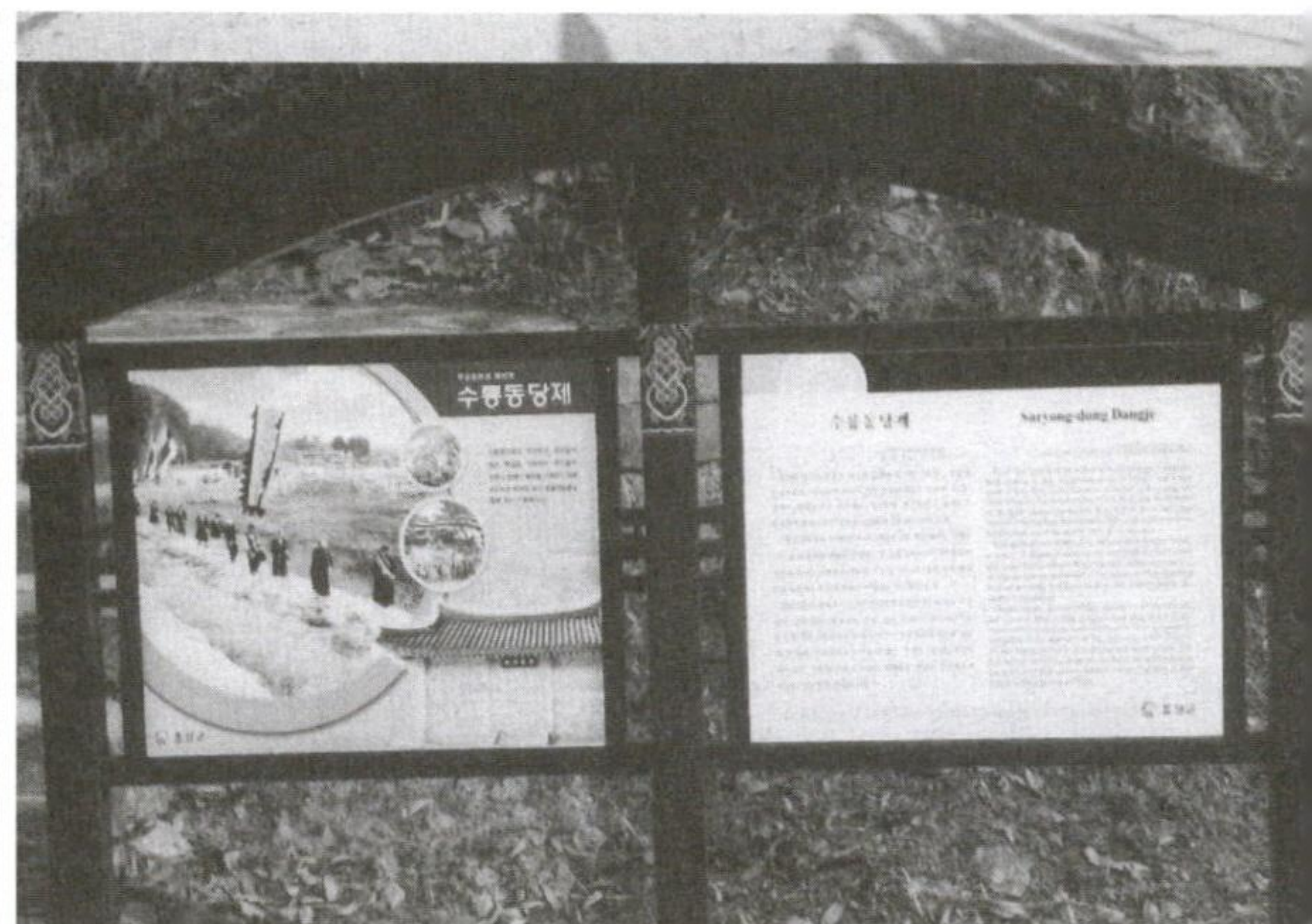


##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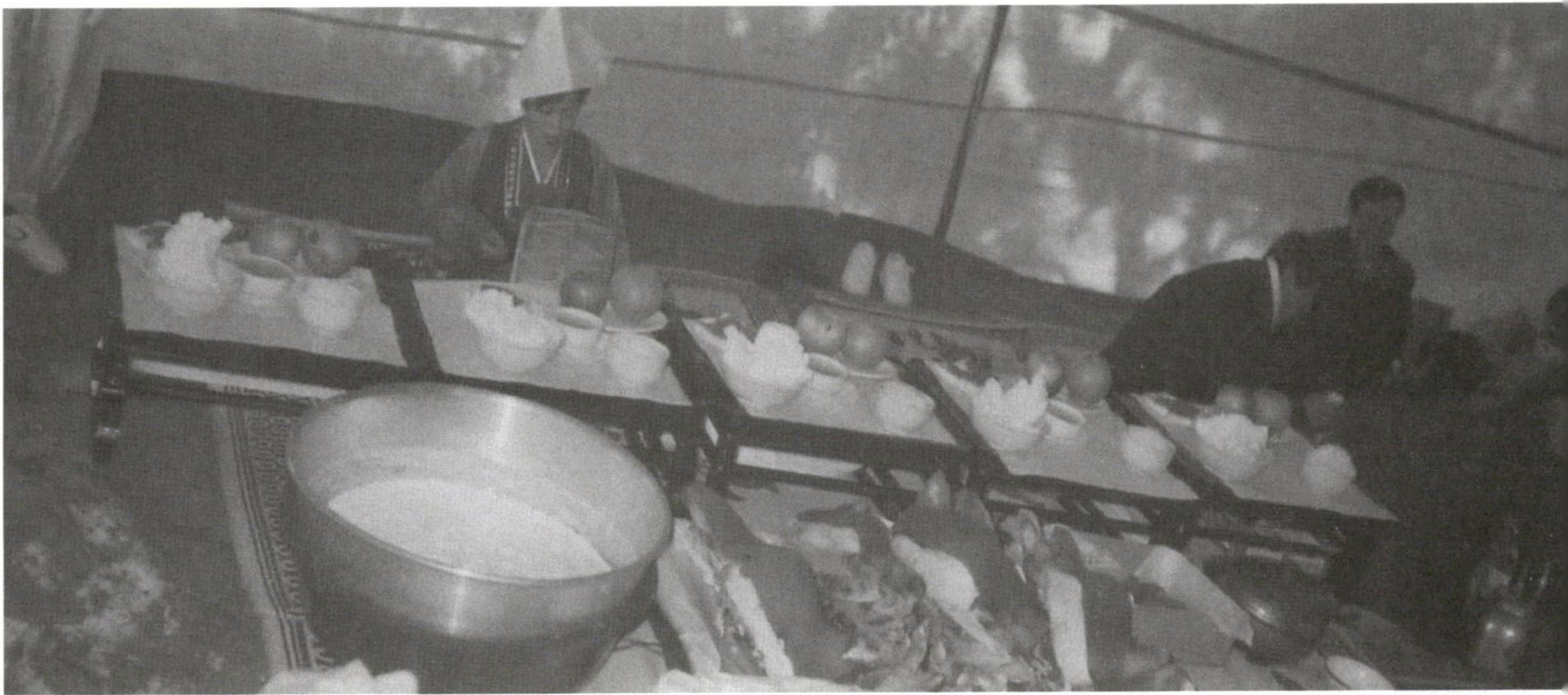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새로운 당집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당산(堂山)에서 제를 재냈다. 원래의 당산풍어제를 지내던 장소는 당집 건물이 아닌 자연제당이였다.

수룡동 마을 당산 정상부에 위치한 제당은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머리 중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당산의 제당은 마을을 비롯하여 멀리 천수만 앞 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서도 당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한다.

제단은 약 8평 정도의 자연제단으로 당수나무인 소나무 두 그루와 아래에 석축을 쌓아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다. 제단은 크게 제물을 차리는 공간과 제관 일행이 제를 지내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오래된 큰 소나무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한편 제를 지낼 때에는 추위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천막으로 임시 제당을 지었다. 임시 제당은 당제가 끝나면 곧바로 철수한다.



한편 수백 년 동안 당산풍어제를 지내오던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2003년부터 장소를 바꿔서 지내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15일에 당산아래쪽에 아담한 당집을 신축하면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



### 3) 당산풍어제의 목적과 당의 신격(神格)

당산풍어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함에 있다. 특히 바다를 생업현장으로 삼아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뱃길에서의 무사함과 풍어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바닷길에서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은 어민들의 가장 큰 염원일 것이다.

당산풍어제의 또다른 목적은 힘든 노동을 잠시 잊고 마을사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되는 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당제를 보존·계승시켜야 한다는 측면도 제를 지내는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

당산풍어제의 대상신은 바닷가이니만큼 용왕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신다. 즉 수룡동에서는 당산풍어제를 지낼 때 다섯 몫의 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는 다섯 신들에게 바치기 위함이다. 다섯 신들은 당각시·당할아버지·당할머니·산신·지신 등의 오당(五堂)이다.

이 다섯신 중에서 주신은 여신인 당각시이다. 이 당각시는 여신으로서 새해의 용왕신인 것이다. 예전에는 배마다 당각시를 배서낭으로 위했기 때문에 늘 여러 화장품이나 치마·저고리, 실 바늘 등의 여성용품을 함께 넣어 봉안하였다고 한다.



#### 4) 당산풍어제의 절차와 구성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진행에 따른 일정별 행사진행 사항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날짜 및 시간대별 행사진행 사항

날 짜 별	행 사 내 용
음력 1월 2일	1. 당제 계획 2. 당주 선출 및 행사 진행의 역할분담 3. 당제 준비물에 대한 협의
음력 1월 10일	1. 당제 제물 준비 2. 각 선박 오폭기 만들기
음력 1월 14일	1. 선박 오폭기 달기 2. 집 오폭기 달기 3. 회관에 대동기 및 각 선박 오폭기 달기 4. 당집 짓기 5. 당길 및 마을청소 6. 거리굿 집짓기 7. 당제 제물 만들기 8. 물달아오기(물넘기기, 오후 5시)
음력 1월 15일	1. 08:00 선주 및 주민 마을회관에 모임 2. 08:00~09:00 봉죽노래 및 배치기 장단 놀이 3. 09:00 당제 행렬 시작 햇불 / 제물운반 / 마을대동기 및 선박 오폭기 오르기(선박 오폭기는 연장자 순으로 오름) 4. 09:30 당집 도착 부정풀이(무속인) / 당제물 차림 5. 10:00 축원(무속인) : 대동의 안전 및 풍어기원 / 선주 및 마을주민 재배 내빈 재배 / 봉죽노래 및 배치기 노래 6. 12:00~13:00 점심식사(내빈 및 주민) 7. 13:00 길지 및 복잔(복떡)받기(연소자 순) 8. 14:00 당제를 마치고 선창으로 하산(연장자 순) 9. 14:30 용왕제 모시기(봉죽노래 및 배치기 놀이) 10. 15:00 선창에서 해산(연소자부터 축원을 받으며 해산) 11. 15:30 선박 뱃고사 모시기(선박 각자) 12. 17:00 저녁식사 13. 18:00 거리굿 및 사살막이 14. 21:00 삼거리 홍수막이 15. 22:00 당제 및 거리굿, 사살막이, 홍수막이행사, 종료

위 표를 참고하여 날짜와 시간대별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들은 「이관호, 대동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서해안 풍어제의 마지막 보루 수룡동 당제(堂祭), 수룡동민속문화보존회, 2001」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사진자료 등을 보완하였다.

## 5) 제전(祭前)의 준비 과정

### (1) 당주 선출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내는 당제에 앞서서 깨끗한 사람으로 당주(堂主)를 내고 축원을 전문적으로 해줄 경쟁이(經巫)를 부른다. 즉 음력 정월 초이틀이 되면 마을에서는 대동회의를 개최하여 당제에 관한 일을 상의하고 당주를 선출한다. 예전에는 한 해 전에 미리 당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다.



당주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선출한다. 일단 당주로 정해지면 일 년 내내 부정이 없도록 정성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래에는 정초에 당주를 선출한 다음 모든 제의가 끝나는데로 당주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근래에는 마을 이장이 당제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아 제를 주관하고 있다. 즉 현재는 마을이장이 당주가 되어 초청된 무당과 함께 제를 지내는데, 여기서 무당은 주로 축원만을 담당할 뿐이고, 제물 준비에서부터 제의 진행 등 일체의 과정은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한편 수룡동의 경우 인근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타지역에서 무당을 초빙하지 않고 전형적인 충청도 굿인 앓은굿을 하는 경쟁이로 서부면 관내에서 주로 초청한다.

### (2) 마을의 정화(淨化)와 금기(禁忌) 사항

당주가 선출되면 마을사람들은 당제 지낼 준비를 한다. 서너명씩 모여서 자연스럽게 금줄을 꼬고 샘을 품으며 마을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한다. 금줄은 원새끼에 길지를 끼워 당주집 대문에 매달아 놓는다. 그럼으로써 신성함을 표시하여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는다. 아울러 마을 뒤쪽에 있는 천마산에 가서 황토를 가져다가 당주집 대문앞 양쪽에 한 무더기씩 뿌리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금토(禁土)'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주집 이외에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황토를 대문 앞에 뿌려놓는다. 그런 다음 당우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마을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중 당주집과 가장 가까운 우물을 그해 당우물로 정한다. 우물 청소가 끝나면 뚜껑을 덮어두는데, 이는 우물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의기간동안 이 우물물을 일반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제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마무리되면 마을사람들은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한다. 만일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마을회의에서 날을 다시 잡아 제를 올린다. 1987년과 2005년 정초에 마을에 초상이 나서 보름날 제를 지내지 못하고 연기하여 제를 올린 적이 있다.

당주로 정해지면 이웃마을에 애사(哀史)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친(至親)이 사망하였더라도 문상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제를 앞두고 예상되는 '피(血)부정'을 막기 위하여 만삭의 임신부를 친정으로 보내거나 마을 바깥으로 피신시킨다. 여기서 마을 바깥이라 함은 당산 너머 육지 쪽에 있는 '용골'을 말한다. 용골에서는 제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부정은 당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당 주변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심지어 마른나무 가지나 솔잎조차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법이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화(禍)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 (3) 제비(祭費)의 마련과 비용 결산

당산풍어제의 경비는 정월 초닷새 경에 걸립으로 장만한다.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쌀 3되씩을 직접 당주 집에 갖다 주었다. 요즘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마을사람들이 직접 이장에게 전하기도 한다. 이를 '당추렴'이라고 한다.

당산풍어제의 주요 경비는 주로 선주(船主)들이 부담한다. 선주들은 배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의 돈을 추가로 성의껏 내어놓는다. 만약 집안에 부정이 있으면 당제가 끝나고 결산하는 자리에서 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당산풍어제 당일에 들어오는 축의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당산풍어제의 경비는 제물 준비와 기타 경비로 사용되는데, 행사 다음날 마을회관에 모여서 결산을 한다.

### (4) 장보기

제물은 광천 장에서 구입한다. 제물 구입은 당주가 정갈한 사람을 사서 준비시킨다. 이때 장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불하는데, 정갈하게 지켜야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하루일당을 이틀로 따져준다.

제물 등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가게에 부정이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구입한다. 제물로는 황소머리 2개, 삼색실과, 초, 소지종이 등을 구입한다.

특히 소머리뼈는 제의가 끝나면 반으로 쪼개어 당산 서쪽 바닷가 나무에 매달아둔다. 제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짐승이 먹어 부정이 탈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제기는 당제를 위한 몫으로 마을에 보관되어있으므로 장만을 하지 않으나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자리는 매년 구입한다.

## (5) 제물 장만

제물은 당주집에서 장만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백설기, 팔시루, 삼색실과, 포, 술 등이 준비된다. 이때 제물은 당각시·당할아버지·당할머니·산신·지신 뭉으로 각각 다섯 상을 차리는데, 상당제와 거리제는 모두 동일하다. 단지 상당에는 백설기 시루를 올리고, 거리제에는 팔시루를 올리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술은 초닷새 날 쌀 한말에 누룩 3되로 담근다. 당주는 술이 완성되면 제를 지내기 하루 전에 징을 쳐서 마을사람들에게 알린다. 이는 술이 다 익었으니 한 병씩 가져가라는 신호이다. 이 술은 각자 뱃고사를 지낼 때 사용된다.

이장이 당주가 되어서 제를 지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아주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지금도 직접 불을 때서 떡을 만드는 등 제물을 정성껏 마련한다. 제물 준비 과정에 변화가 있었지만, 정성만은 옛날과 크게 변함이 없다.

## 6) 제의 과정

### (1) 물 달아오기

당산풍어제에 앞서 '물 달아 오기'행사를 치른다. 당제 준비를 마친 후, 마을 청년들은 각자 손에 빈 병을 하나씩 들고 물을 달려간다. 수룡동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는 인근지역에 가서 물을 달아오는 것이다. 부근에서 가장 높은 천마산 줄기의 산에서 솟는 샘물을 병에 담아서 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아 거꾸로 들고 마을로 돌아온다. 솔잎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천마산의 풍부한 수량(水量)을 수룡동으로 옮긴다는 믿음에서 행하는 것이다.

### (2) 상당제(上堂祭)

#### ① 뱃기 세우기

배를 부리는 선주들은 열 사흘날 아침이 되면 소유한 배의 수만큼 뱃기를 안마당이나 대문에 세워둔다. 밤이 되면 집안에 세워두었던 뱃기를 가지고 당주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당주집에 뱃기를 가지고 제일먼저 들어가면 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주집 대문에 금줄이 걸려있는 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문 앞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당주가 당일 밤 12시가 넘어 금줄을 걷으면 서로 먼저 들어가 마당에 뱃기를 세워 놓는다.

요즘에는 당주를 이장이 담당하면서부터 뱃기를 마을회관에 세워놓았다가 상당제 때 제당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한편 제당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뱃기 이외에도 당산풍어제 기간동안 선주집 마당에는 뱃기를 계속 세워둔다.

## ② 당 오르기

당산풍어제 당일인 보름 날 아침 9시가 되면 당주집 마당(요즘은 마을회관)에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경쟁이)이 당제의 시작을 알리는 징을 한번 치면서 비손을 한다. 이어 마을사람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당산으로 향하는데, 이때 당주는 참나무로 만든 햇대에 불을 붙여 들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선다. 햇불을 밝히고 가는 것은 혹시 모를 부정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주 뒤를 풍물패와 무당, 그리고 제물을 짊어진 사람, 뱃기를 든 선주들 순으로 행렬을 지어서 오른다. 기를 올릴 때에는 연령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하지만, 내릴 때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한다. 다른 어른처럼 기를 올리고 내릴 때 서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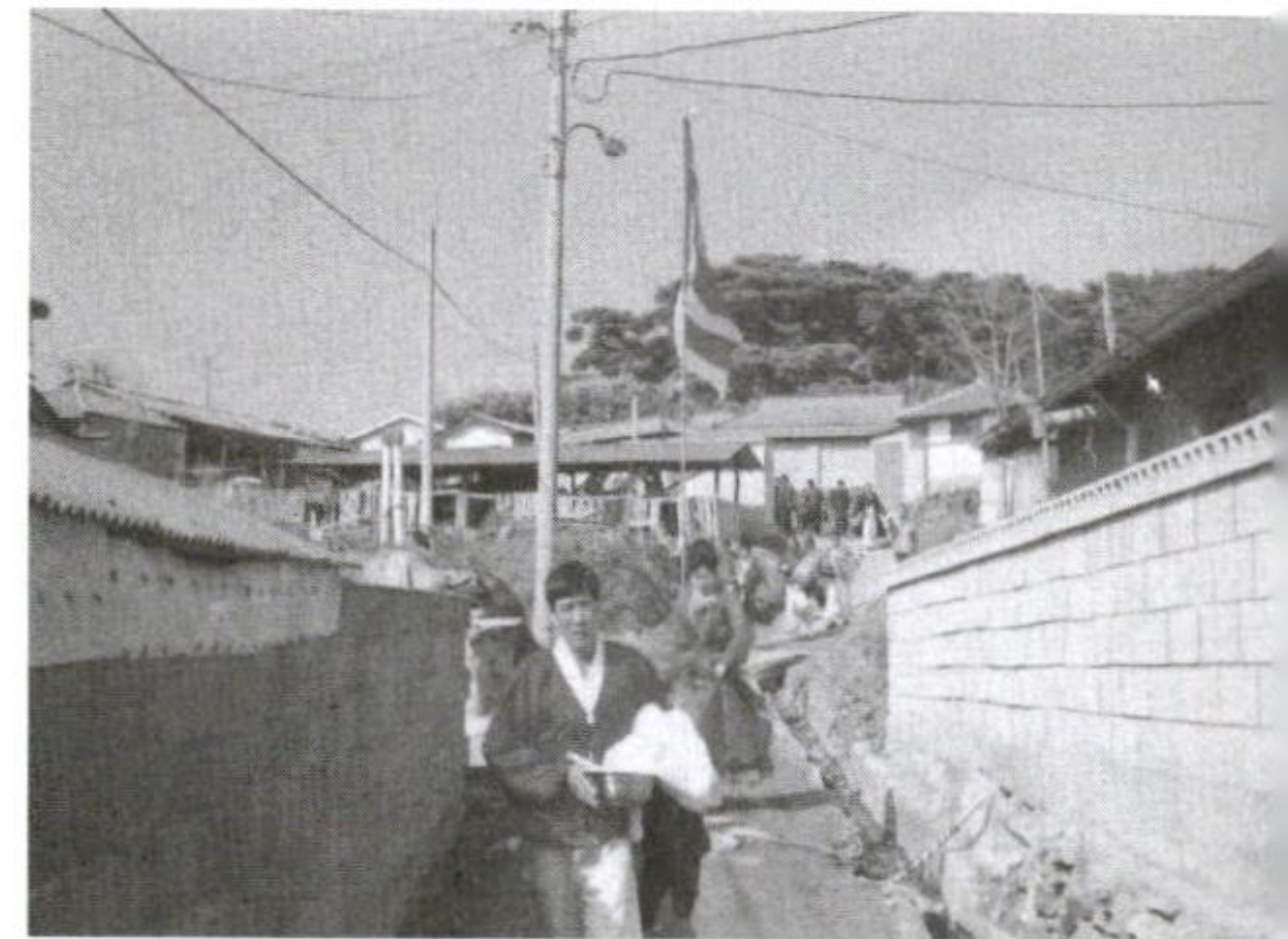
한편 제당 주위에는 천막을 쳐놓아 바람이 들지 않게 한다. 옛날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제를 지냈었다. 당제를 지낼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지 않고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무서운 줄 모르고 지내 왔다고 한다.

## ③ 부정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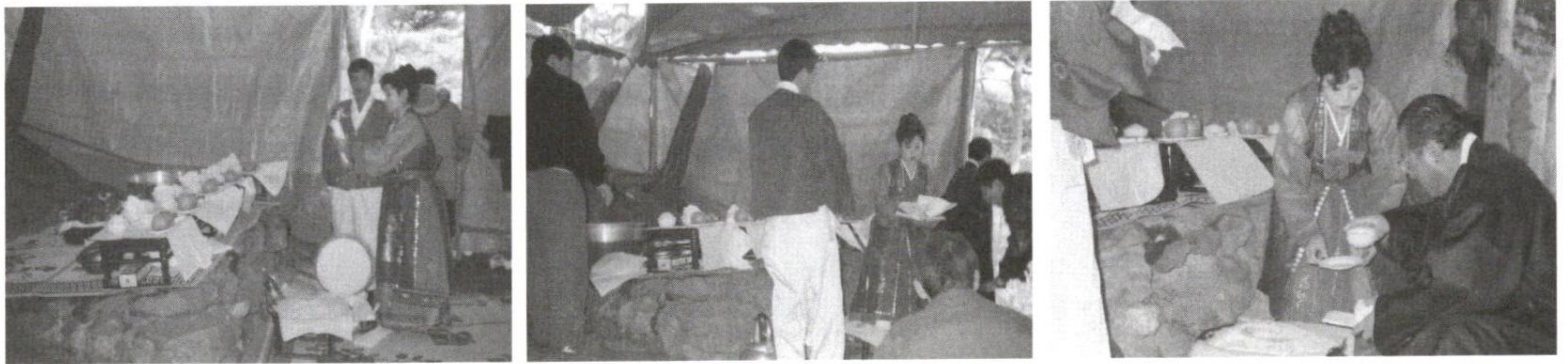
제당에 도착하면 무당은 온갖 부정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놓은 당 안으로 들어가 부정풀이를 한다. 사발에 고추와 숯을 넣은 물을 가지고 축원을 하면서 당 주위를 한번 돈 후에 이를 당 밖으로 버린다. 마을사람들은 부정풀이가 끝나기 전에는 제당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무당이 부정풀이를 하는 동안 선주들은 자신의 뱃기를 당 옆에 가지런히 세워둔다. 당주는 가지고 온 햇불로 당 옆에 불을 피우고 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불은 제의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당제를 지내는 동안은 당 주위의 나무를 건드려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당주위의 나무를 건드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 ④ 본제(本祭)

부정풀이가 끝나고 제상이 차려지면 경쟁이가 본제(本祭)를 지낸다.







본제는 경쟁이의 독경에 의한 축원으로 구성된다. 경을 읽는 사이사이에 선주와 마을사람들은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서너 석(席)의 앉은곳을 한 후에 경쟁이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당산소지, 대동소지, 당주소지, 선주소지 순으로 올리는데, 선주소지는 복받는 행사와 겸해서 실시한다. 이어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당산 산신령으로부터 복받는 행사를 한다. 마을 이장이 나이 어린 선주부터 한 명씩 호명하면, 호명 받은 선주들은 제단으로 나와서 복(福)돈을 놓고 절을 한다. 이때 경쟁이는 선주를 위해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경쟁이는 선주에게 제주(祭酒), 백설기, 길지(吉紙) 등을 나눠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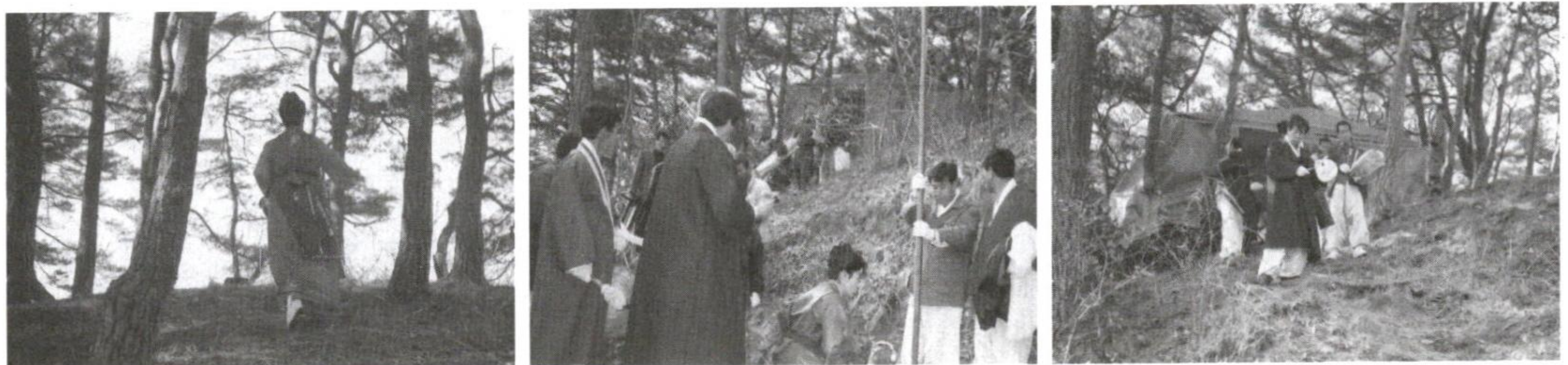
고사 덕담을 받은 선주들은 기를 내린다. 선주는 기를 내릴 때 경쟁이에게서 받은 떡과 고기를 길지에 싸서 뱃기 끝에 매단다. 선주들은 복받는 행사가 끝나면 잠시동안 제단 앞에서 풍물을 치며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상당제를 마친다.

### ⑤ 당산 내려오기

상당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기를 앞세우고 당산을 내려온다. 이 때 제단 바로 아래에서 마을기를 세워놓고 경쟁이가 잠깐동안 축원을 한다. 당제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간다는 인사인 것이다. 이어 당주 집(마을회관)으로 내려온 일행은 해산행사를 한다.

### ⑥ 해산행사

해산행사는 마을기를 세워놓고 개인축원을 하는데, 호명하는 대로 한사람씩 나와서 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경쟁이가 축원을 해준다. 개인축원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뱃고사 준비를 한다.





### (3) 뱃고사

#### ① 뱃기 축원

뱃고사 준비를 하고 바닷가로 나온 선주들은 다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를 내린다. 쌀이 담긴 함지박을 무당이 먼저 바닥에 내려놓으면 선주들 역시 순서대로 각자 준비한 쌀꽃반에 뱃기를 꽂는다. 그러면 무당이 축원을 해준다. 이어 무당은 잡구잡신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동쪽으로 뺨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화살에 시루떡을 끼워 사방으로 쏘아댄다.

#### ② 뱃고사

뱃기 축원이 끝나면 이어 선주들과 그 부인들은 뱃기와 제물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배로 가서 뱃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집집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대개 시루, 탕, 과일, 고기, 조기 등을 마련한다.

배에는 선주와 가족만이 올라간다. 제물은 배중앙(함판) 한곳에만 차리지만, 술은 이물, 고물, 함판 등에 각각 따라놓는다. 뱃고사를 지내면서 선주는 '물아래 참봉, 물위에 참봉 많이 운감하시오'라는 덕담을 곁들인다.

뱃고사가 끝나면 서로 옮겨다니면서 술과 음식을 나눠먹기도 한다. 어떤 선주들은 뱃고사를 끝낸 후 배를 타고 앞바다를 한바퀴 돌기도 한다.

### (4) 거리굿

#### ① 제물준비

뱃고사를 마치고 해가 저서 어둑해지면 거리굿을 시작한다. 거리굿은 원래 산고개(새마당)에서 지냈다고 하나 거리가 너무 멀어 선착장에서 지내다가 바다가 막히면서 지금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서 비닐로 임시제당을 만들어 놓고 지낸다.

거리굿은 마을에 들어오는 액운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거리굿의 제물은 당산제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백설기 대신 팔시루를 새로 마련하여 올린다.





한편 당산에서 모셨던 당제가 선주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거리굿은 각 가정의 아낙네들의 정성으로 이어진다. 각 가정에서는 대주(大主)의 주발에 불발기 쌀을 담아 만든 '꽃반'을 각각 가져다가 제상 옆에 차려 놓는다. 꽃반은 대개 하나를 준비하지만 특별히 정성을 드리고 싶은 집에서는 식구수대로 마련하기도 한다.



### ② 거리굿

거리굿 역시 경쟁이가 주관한다. 경쟁이가 경을 읽는 동안 아낙네들은 제상 주위에서 치성을 드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 당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돈을 바친다. 축원을 마친 경쟁이가 이어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거리소지, 대동소지, 당주 소지, 세대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세대주 소지를 올릴 때 꽃반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앞으로 나와 자기 꽃반에 절을 하고 복 돈을 놓는다. 그러면 경쟁이는 쌀 점 신수를 봐 주면서 덕담을 해 주고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

### ③ 용왕제와 사살막이



거리굿을 끝낸 후 이어 경쟁이는 바닷가로 나가 비손을 하면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사살막이'라 하여 동쪽으로 뺀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활과 화살로 액막이를 한다. 이 사살막이를 '사살풀이' 또는 '퇴식'이라고도 한다.

사살막이는 수수팥 범벅으로 만든 새알심을 동도지(東桃枝)로 만든 화살에 꽂아 동서남북으로 쏘아버리는 것으로, 마을의 잡귀잡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용왕제를 마친 후 경쟁이는 혹시 잡귀가 뒤따라올까 염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온다.

#### ④ 거리제

사살막이가 끝나면 약간의 음식을 차려 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삼거리로 나가 거리제를 지낸다.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음은 물론, 도로의 무사함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즉 마을 입구 삼거리에 짚을 깔 다음 제물을 차려놓고 그 옆에는 짚불을 피워 놓는다. 이어 경쟁이가 경문을 외워 해를 물리친 후에 제물을 사방에 흩뿌린다. 마을 입구 문인석이 있는 곳에도 제물을 떼어 한지에 싸 놓는다.

#### (5) 음복(飮福) 및 결산(決算)



이렇게 하여 모든 제의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밤새 흥겹게 논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배치기 노래나 풍어제 봉축놀이(이밀량)등을 하는데, 이러한 놀이는 당제가 치러지는 중간 중간에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다시 모여 제비결산을 보고, 소머리 국을 끓여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 (6) 삼일당제(三日堂祭)

당산풍어제를 마친 후 삼일째 되는 날에는 '삼일당'이라 하여 당주 내외만이 당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낸다. 직접 산에서 메를 지어 간단하게 올리는 이 제사는 당제를 잘 흠향했는가를 가늠하는 마지막 절차이다. 이때 삼일당에 올릴 술은 당제를 지낼 때 따로 남겨 둔다. 저녁 8시경 당주 내외가 당산으로 올라가 메를 짓고 불발기 쌀과 함께 술을 올린 다음, 간단히 제를 지내고 내려온다. 근래에는 메를 집에서 직접 지어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산에서 직접 지어 술에 숟가락 두 개를 꽂아 올렸다고 한다. 삼일당을 마치고 당주 내외가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은 삼일당에 올렸던 메를 나누어 먹는다. 삼일당을 마지막으로 모든 당제 절차는 끝을 맺는다.

## 풍어제 봉죽놀이(이밀량)

- 양당 성황님 모셔다 신평 바다로 돈살러 가세
- 연평 칠산 널린 칠령 한쌍만 남기고 다 잡아 실었네
- 암애수애 맞마쳐 놓으니 아드레 밖에 두둥실 나뒀네
- 옥동도화 만시춘하니 가지가지가 봄빛이로고나
- 삼국충신 도원수는 임경업 장군이 분명하구나
- 입하소만은 연평도 파시오 속 대서 절기엔 수입도 작사라
- 정월달부터 치는 북을 일년 열두 달 내눌러 치누나
- 뱃집의 아줌마 인심 좋아 막뚝팔 길러 화장해 줬대네
- 순풍 바람에 돛을 달고 연평 바다에 결없이 몰았네
- 연평바다 높이 뜬 갈매기야 정든 임 소식을 전하여 다오
- 허리대 꼭대기 서리화 꽃고 가운데 마징에 봉죽꽃 피었네
- 달도 밝고 명랑한데 고향생각이 절로 나누나
- 배 떠날 때는 놉바람 불더니 환고향 할 때는 갈바람 분다
- 만선에 깃발을 꼬작꼬작 달고 마파람 불라고 성황님께 조르네
- 금년도 신수대통하여 김선주 불러 도장원 줬대네
- 연평도 산마루 북소리 나드니 오늘도 상봉에 정든님 만나네
- 우리배 동사들 힘을 모아 세세년년 대풍어 이루세
- 이물고물대 만선기 달고 징북소리에 궁둥춤 추누나
- 뱃집에 아줌마 거동보소 닭잡아 가지고 술반아 가지고  
다림발 아래로 설설기누나

## 배치기 노래

- 선소리 : 장군님 전에 명복을 받아  
우리배 유덕선 도장원 했구려
- 후 령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 선소리 : 사해바다 용왕님 복을 받아  
만배등 장원을 우리가 했구려
- 후 령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 선소리 : 우리배 선주님 거동보소  
조기 불뚝타고 덩실덩실 춤만 추누나
- 후 령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 선소리 : 금년신수 대통하여 춘하추동  
행차마다 대만선이로다
- 후 령 : 아~하 아~에 에헤이요오  
에~헤 어어이 어허어 어~  
에~헤 에어이 어어허이요오~

## 수룡동 당산풍어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수룡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산풍어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산업개발 논리에 밀려 지형지세와 삶의 생활방식이 변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해 온 당산풍어제는 그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채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도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그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러한 마을제가 행사 위주로 치우쳐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수룡동의 경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사람도 빠짐 없이 참여하고 있다. 바다가 막혀 생활터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홍보지구까지 나가 어업활동을 함은 물론, 조상 대대로 해오던 당산풍어제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열정이 아직도 넘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점차 생활터전을 잃어가면서 마을을 떠나는 세대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마을사람들은 당산풍어제가 사라질까 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잡아 온 당산풍어제가 마을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9년 수룡동에서는 당산풍어제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룡동 당제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만호)'를 결성하여 이를 계승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외롭기만 하다. 대개 이러한 정도의 문화량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법도 한데, 이곳 수룡동의 당산풍어제는 두세 곳의 글에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룡동의 당산풍어제가 그만큼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곧 보존의 당위성과도 연결된다. 아무튼 수룡동 앞바다가 사라져 일터를 잃게 되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란 측면에서 당산풍어제만큼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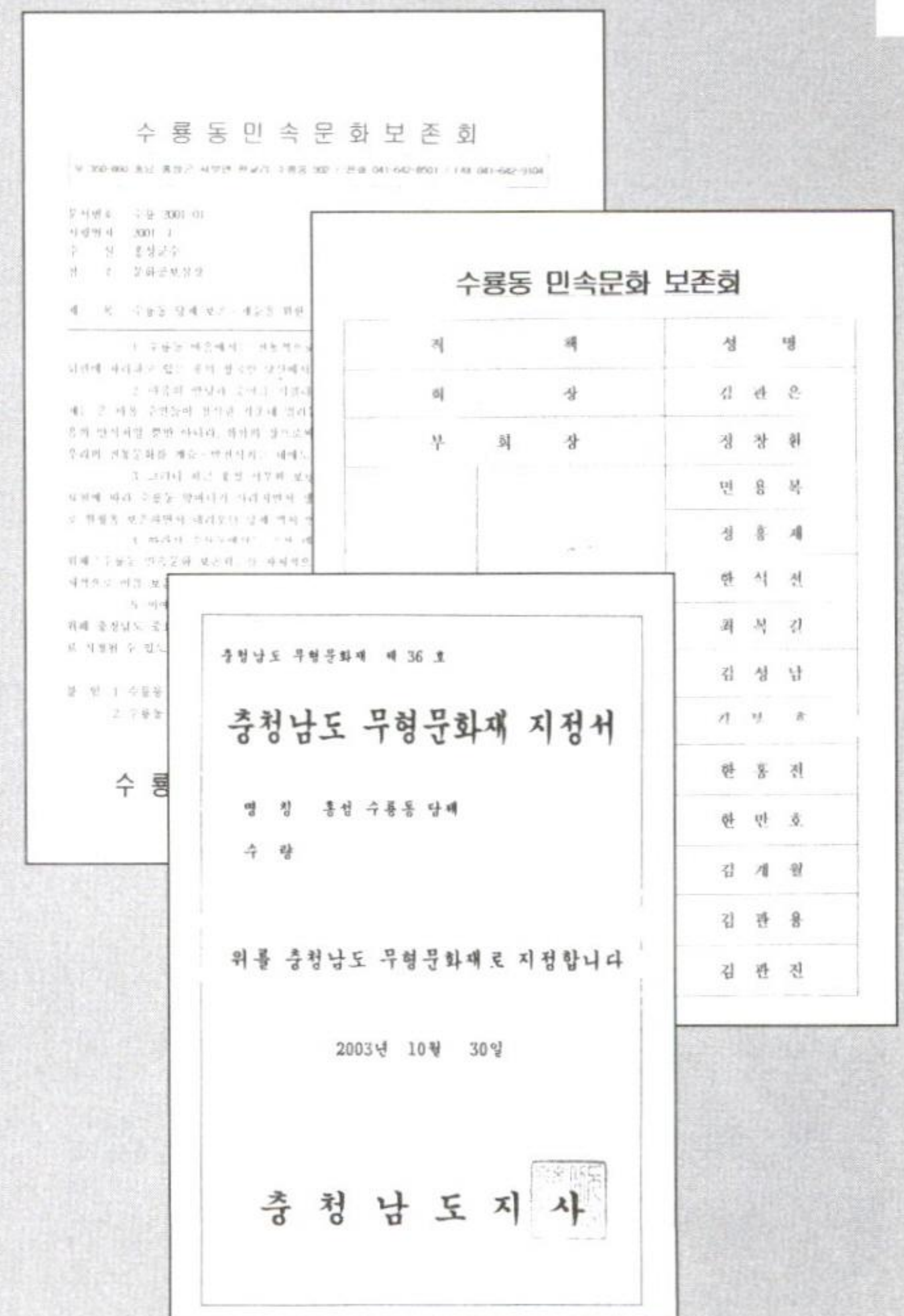
# 수룡동 당산풍어제를 지키기 위한 마을사람들의 노력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산풍어제를 지내는 수룡동은 한때 1종 항구로서 상당히 번창했던 마을이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여 수룡동으로 몰리던 어업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서 조그만 어촌마을로 남게 되었다. 더욱이 1991년부터 시작한 흥·보(흥성과 보령의 약칭)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금은 수룡동 포구 자체가 없어졌다.

흥보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란, 충남 서해안의 모산만과 오천만에 2개소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충남 흥성군과 보령시 일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는 취지로 실시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흥성군 서부면 신리와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를 연결하는 길이 1,685m의 흥성방조제를 설치하였는데, 1991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하였다.

흥성방조제가 설치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은 수룡동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 드나들던 바닷물과 함께 항구 자체가 없어졌으며, 마을의 주 소득원이었던 굴양식을 비롯한 생업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지금 현재 수룡동에 정착하던 마을의 배들은 모두 마을 건너편에 있는 모산도에 정착하며 어업을 하고 있다.

수룡동 마을의 생업터전이 사라지게 된 현실 앞에서, 당산풍어제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수룡동 주민들은 한때 당산풍어제의 진로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수백년동안 수룡동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킴이가 되었던 당산풍어제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다. 결론은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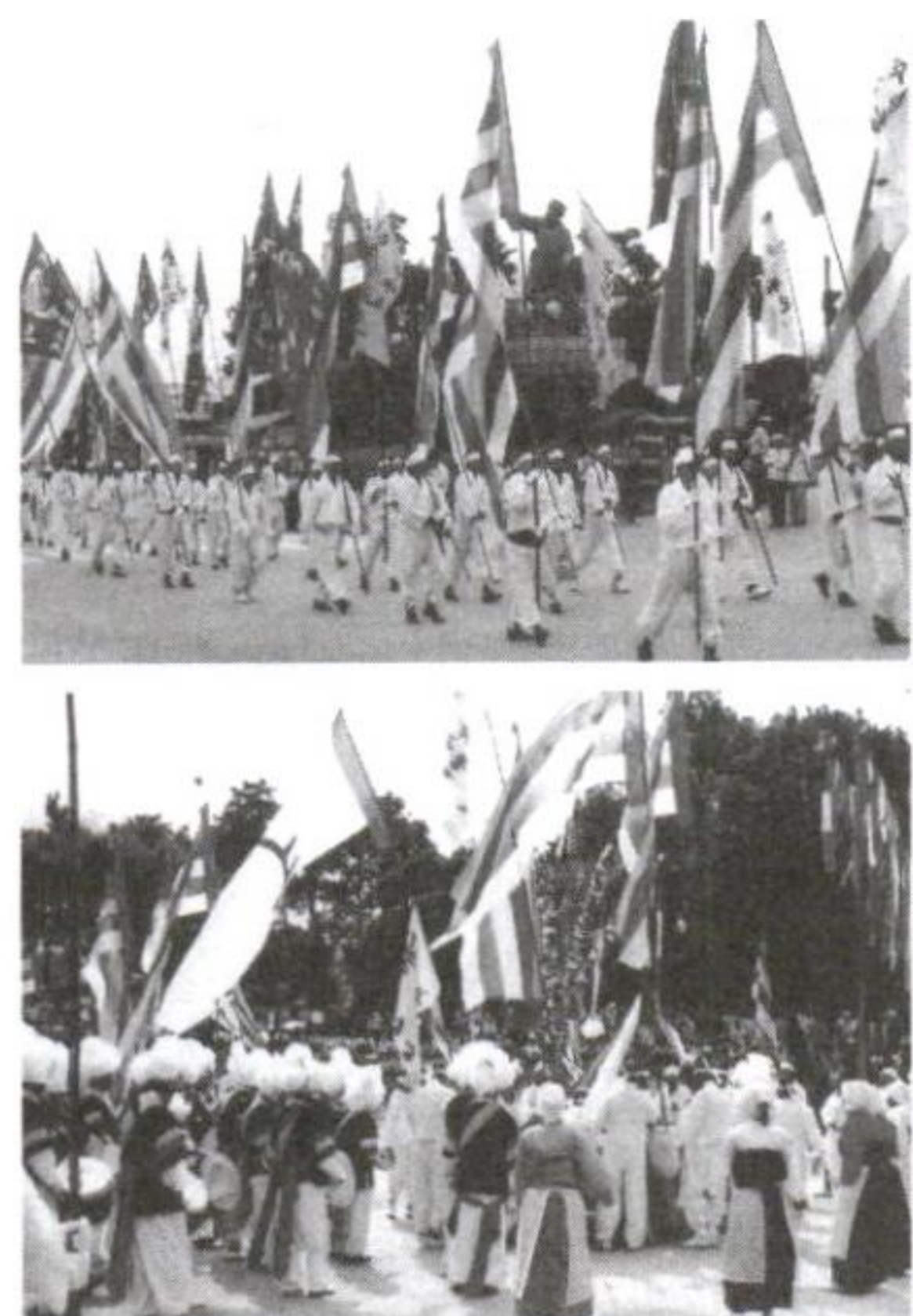
발전시키고 계승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가자고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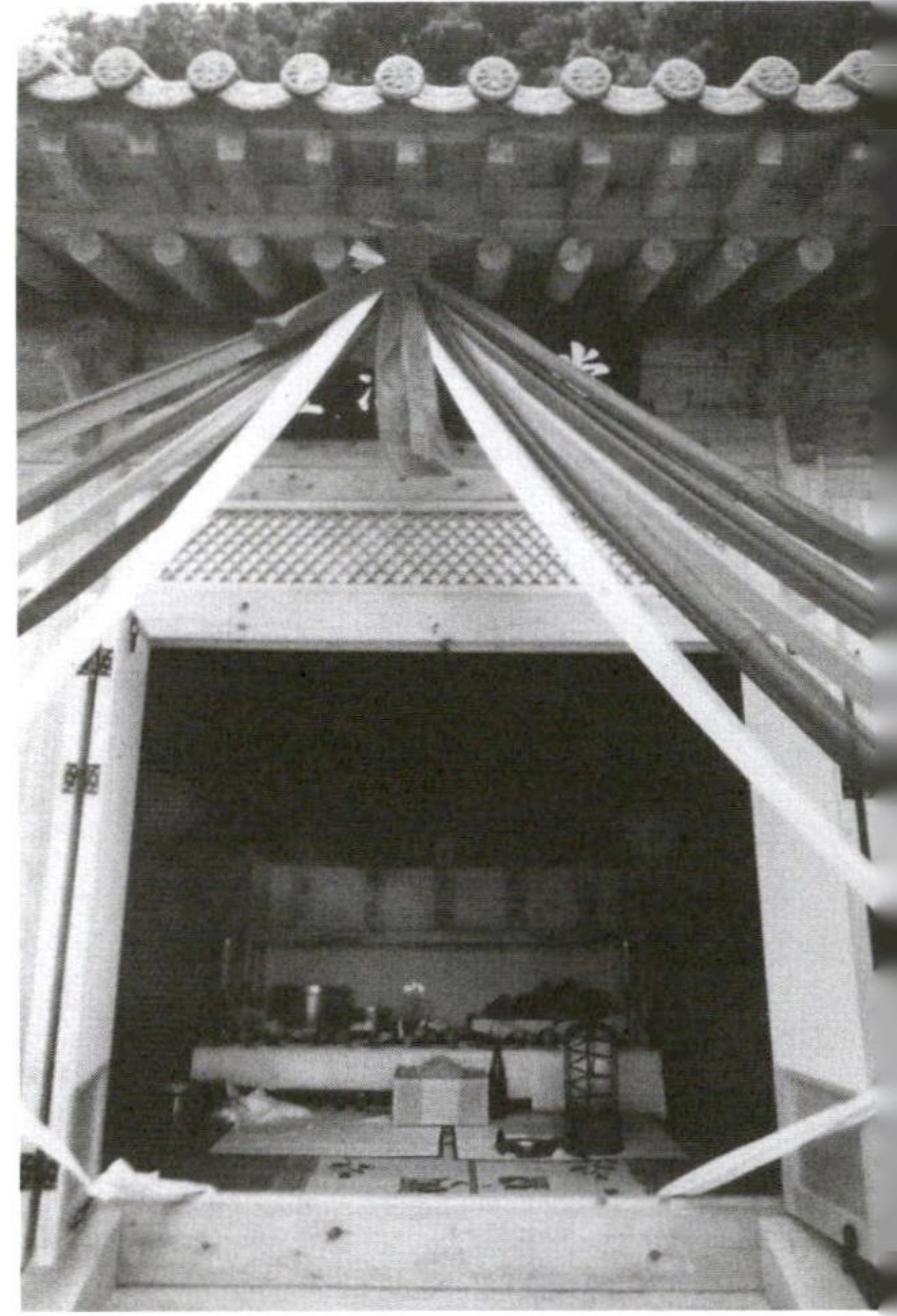
수룡동당산풍어제추진위원회(위원장 한만호)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당산풍어제 지키기에 나섰다. 수룡동 주민들은 옛날부터 지내왔던 당산풍어제의 모습을 잘 정리하여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해나갔다. 또한 학계의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당산풍어제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가치를 검증받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다.

2001년 4월 충청남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고, 수룡동 민속문화 보존회(회장 김관은)를 홍성군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충청남도의 조속한 문화재 지정을 촉구했다. 드디어 수룡동당산풍어제는 2003년 10월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6호로 지정을 받았고, 2004년 내포문화제 개막식에서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풍어제를 시연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수룡동 당산풍어제를 옛모습 그대로 대대손손 계승 보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은 제당을 새로 건립하는 결실을 얻기에 이르렀다. 수룡동 주민들은 당산풍어제를 길이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당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성군에 당산풍어제당의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어서 홍성군에서 6,000만원을 보조받았고, 마을자체 기금 300만원을 보태어 당산풍어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당산풍어제당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해양수산부 소유였다. 이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





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103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9.8평 규모의 제당을 신축하였고, 2003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원래는 당산풍어제당을 기존의 자연제당 자리에 세우려고 했었다. 그러나 수령 100년에서 200년이 넘는 소나무 70여 그루를 베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 소나무들은 옛부터 마을을 지켜온 수호목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연유산이기, 베어내기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차선책으로 당산아래 해안가에 제당을 신축한 것이다.

또한 당산풍어제의 모습도 더욱 알차게 보완하여 옛모습을 재현하였다.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수룡동이 어촌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했던 1950년에서 60년대가 가장 풍요로웠다. 옛날의 풍어축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서리화와 봉죽을 제작하였다. 50여년이 넘어서 재등장한 서리화는 수룡동 어선이 칠산 앞바다, 연평도 황금어장에서 조기를 잡아 만선으로 돌아올 때 배 위에서 꽃을 접어 만선 소식을 알렸던 상징물이다. 봉죽은 마을 주민이 화목과 단결을 기원하는 대동풍어제 행사시 서리화보다 더 풍성하게 꽃을 접어 깃대에 세웠던 기물이다.

수룡동 주민들은 2003년에 서리화와 봉죽을 재현하기 위하여 전주민 160여명이 한 달여간 제작에 참여했었다. 50여년 전에 서리와와 봉죽 제작에 참여했던 민용복 옹의 지도가 있어서 가능한 작업이었다.

수룡동 풍어당제의 갖가지 준비는 추진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을 비롯한 전 주민이 정성을 기울여 지내고 있다.

한때 명맥이 끊길 존폐의 위기에 처했던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수룡동 뿐만 아니라 우리고장 모두의 단합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정신적인 풍요를 느끼도록 훈훈한 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신앙적인 의의를 뛰어넘는 자랑스런 문화행사이다.



##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의미와 특징

수룡동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최서단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 마을 앞으로는 천수만이 펼쳐져 있다. 지형적으로 마을 좌우와 마을 앞 바다 건너편에 야트막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그 모습이 마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수룡동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어 배를 접안시키기에 매우 편리하며, 바다로부터의 물산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좋은 항구로써 항상 인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잇점은 풍부한 역사와 해양문화를 간직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룡동은 홍성 서부와 보령 천북을 잇는 홍·보 지구 방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항·포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앞바다가 가로막히면서 바다가 아닌 담수호로써 선착장만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 바다에서의 생활터전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룡동 사람들은 수 백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생업터전과 전통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바다가 막히면서 생업터전을 홍·보 지구 방조제로 이동하여 어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음은 물론, 근대화 및 산업화란 미명아래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신시하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마을제를 옛 모습 그대로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수룡동은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두 어촌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마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주민들이 대거 이곳으로 피난하여 왔는데, 그 중 일부 주민들은 지금껏 살고 있다. 충남의 서부 해안 마을에서 황해도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음은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매우 주목되는 바이다.

문화적으로도 수룡동은 서해를 배경으로 싹튼 해양성내륙문화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지역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많은 문화량을 소유하고 있다. 즉 고기잡이를 나가면 자연스럽게 배치기 노래를 불렀고, 마을에서는 이들을 위한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뱃고사 등이 치러졌다. 특히 마을 내에 기독교 등 외래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제당이 위치하고 있는 당산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 전통적인 당제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 거기에 마을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 많은 자료가 지금껏 전해진다. 즉 1965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당제에 대한 물목기를 기록해 오고 있음은 물론, 마을의 변천모습과 당제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가 잘 보관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수룡동의 경우 급격한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금껏 이러한 전통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역사·문화·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수룡동 당제는 내용면에서도 민속학상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을 갖는다.

풍수상으로 볼 때 수룡동은 용의 형국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당산에서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서해의 용왕신에게 당제를 지낸다. 여기서 용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신으로, 이러한 용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보다 평안하다고 생각한다.

제당의 형태에 있어서도 예로부터 지금껏 당수나무와 제단을 기본으로 하는 연제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노상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당제를 지내야만 하는 고통이 따랐지만, 신에 대한 정성과 전통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당집을 짓지 않았었다. 2003년 2월에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신당을 신축했다.

당의 신격에 있어서 수신으로 여신이며 서해의 용왕신인 당각시를 비롯

하여 당할아버지·당할머니·산신·지신 등 오당을 모시고 있다. 이로 보아 수룡동 당제는 다신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실례로 수룡동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당제를 지낼 때 다섯 신에게 바칠 다섯 몫의 제물을 준비한다.

제의과정은 크게 물 달아오기·상당제·뱃고사·거리굿·음복 및 결산·삼일당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풍부한 물을 기원하는 의례인 '물 달아오기'와 당제의 흠향 정도를 가늠하는 절차인 '삼일당제' 등은 독특한 제의 절차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제의절차와 절차마다의 풍부한 문화량 역시 서해안의 어로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제의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도 대부분의 과정은 무당이 이끌어 가지만 중요한 결정과 주도권은 당주와 마을 사람들에게 있다. 또한 상당제는 선주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거리굿은 아낙네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반면 뱃고사는 선주 가족이 중심이 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제가 행사 위주로 치우쳐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수룡동의 경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당제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열정이 아직도 넘치고 있는 것이다.

수룡동 사람들 역시 여러 주변환경의 변화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란 측면에서 당제 만큼은 계속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룡동 당제의 민속학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수룡동 당산풍어제의 어제와 오늘

1) 196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모습들

▶ 13 POTO ■ 27fream ▶ 4×6 ▶ 13 POTO ■ 27fream ▶ 4×6



▶ 당주가 횃대에 불을 붙이는 모습



▶ 당 오르기 모습



▶ 당수나무에 매달아 놓은 길지와 촛불

▶ 13 POTO ■ 27fream ▶ 4×6 ▶ 13 POTO ■ 27fream ▶ 4×6



▶ 제물 진설 모습

▶ 13

POTO



27fream

▶ 4 × 6

▶ 13

POTO



27f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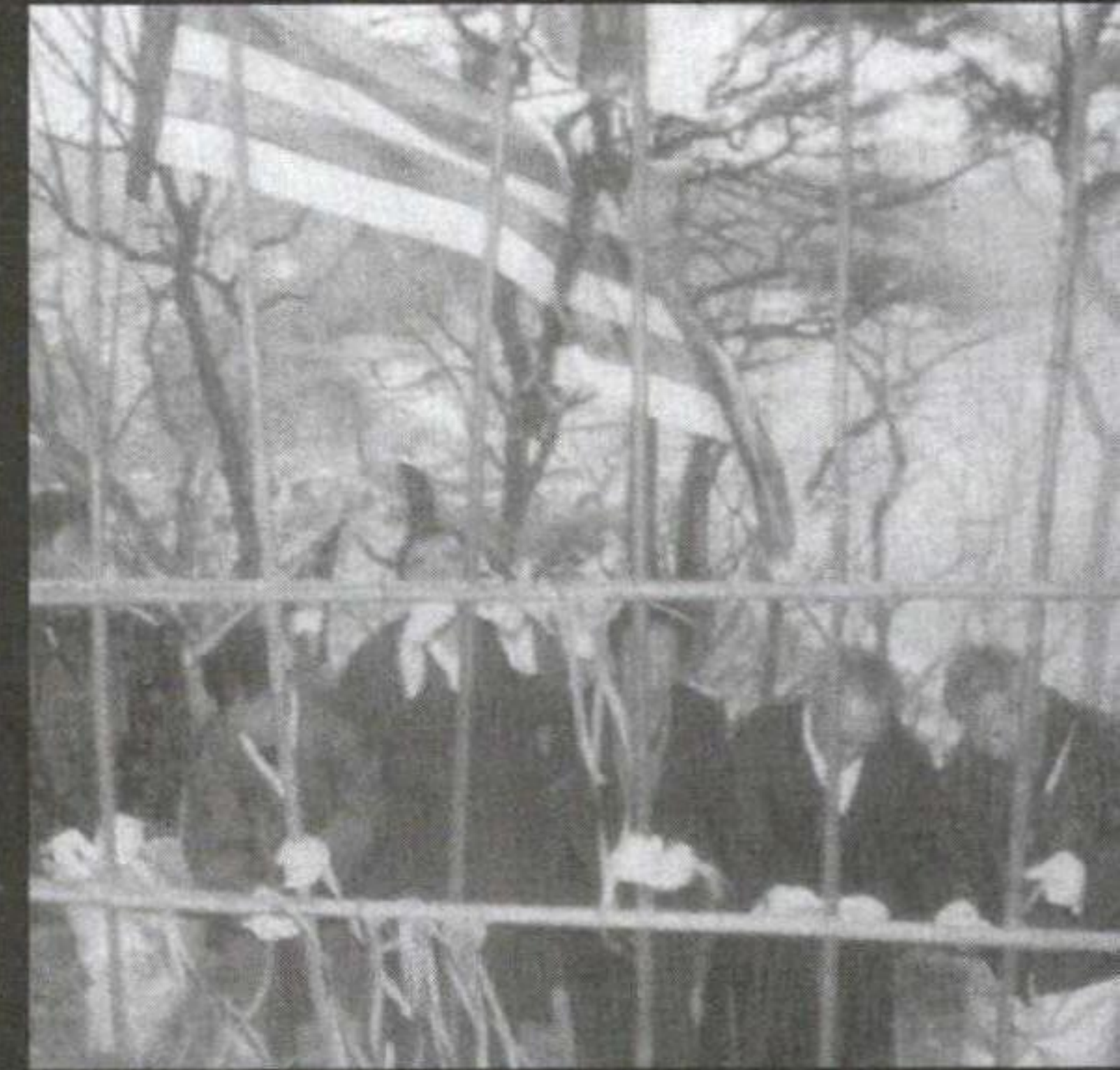
▶ 4 ×



▶ 경쟁이의 축원 모습



▶ 당주의 재배 모습



▶ 당산에 도착한 후 뱃기를 세우고 있는 선주들



▶ 당제에 모인 주민들(1970년대)

▶ 13

POTO



27fream

▶ 4 × 6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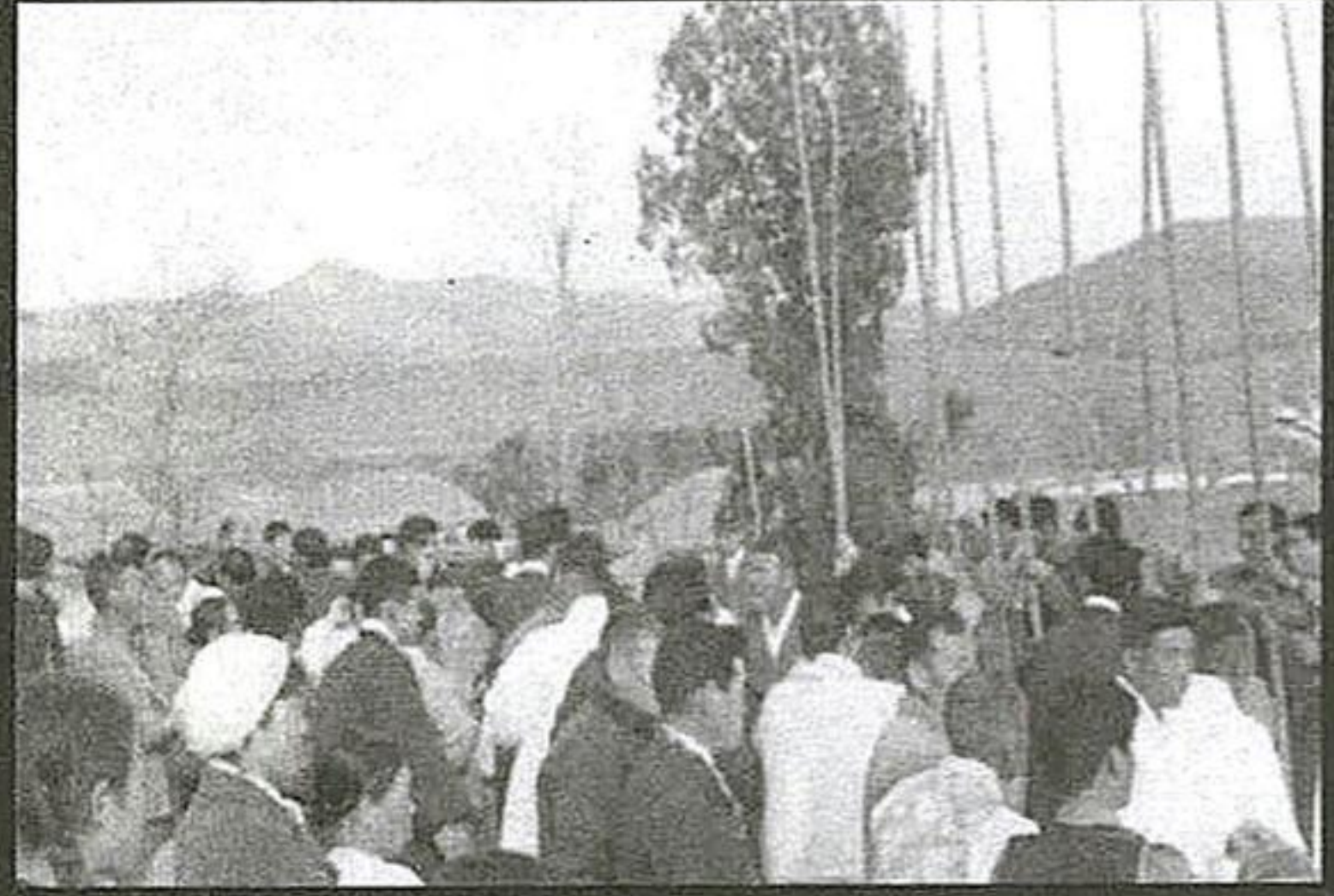
POTO



27fream

▶ 4 × 6

▶ 당제에 모인 주민들(1970년대)



▶ 배치기 노래를 부르는 주민들(1970년대)

▶ 13 POTO ■ 27fream ▶ 4x6 ▶ 13

POTO ■ 27fream ▶ 4x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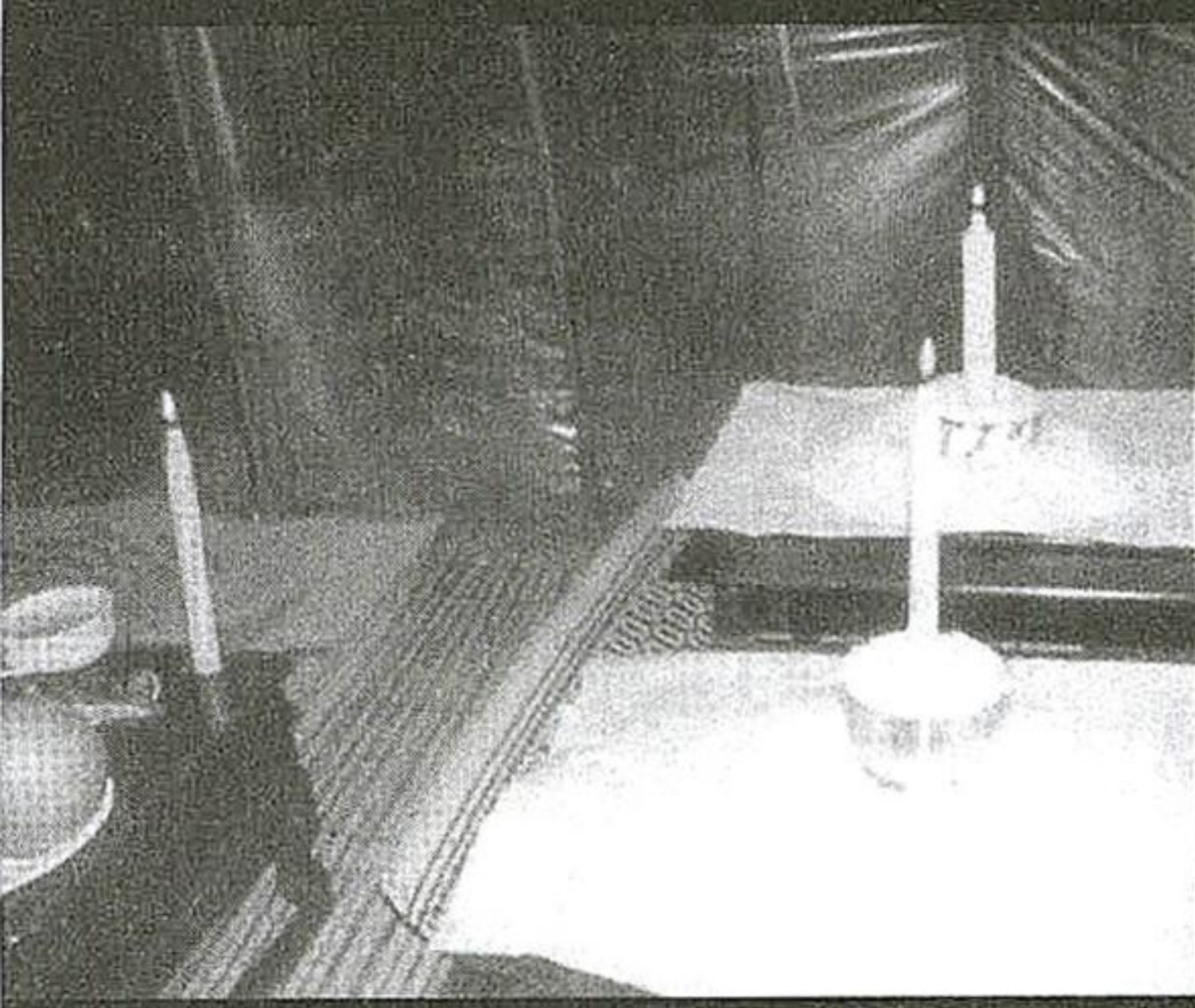
▶ 배에 뱃기를 달고있는 선주들(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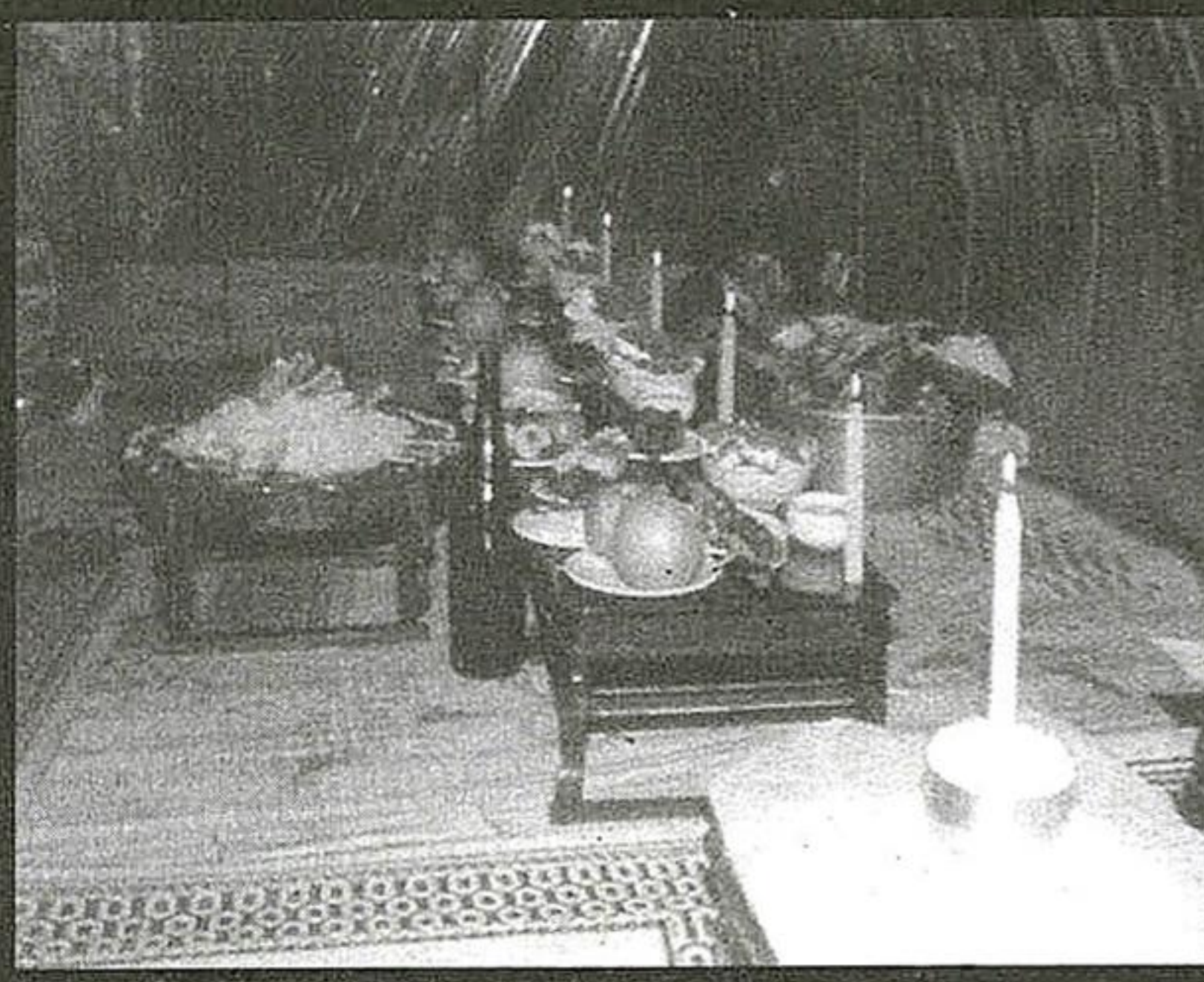
▶ 당제를 위해 뱃기를 꽂아놓은 선박들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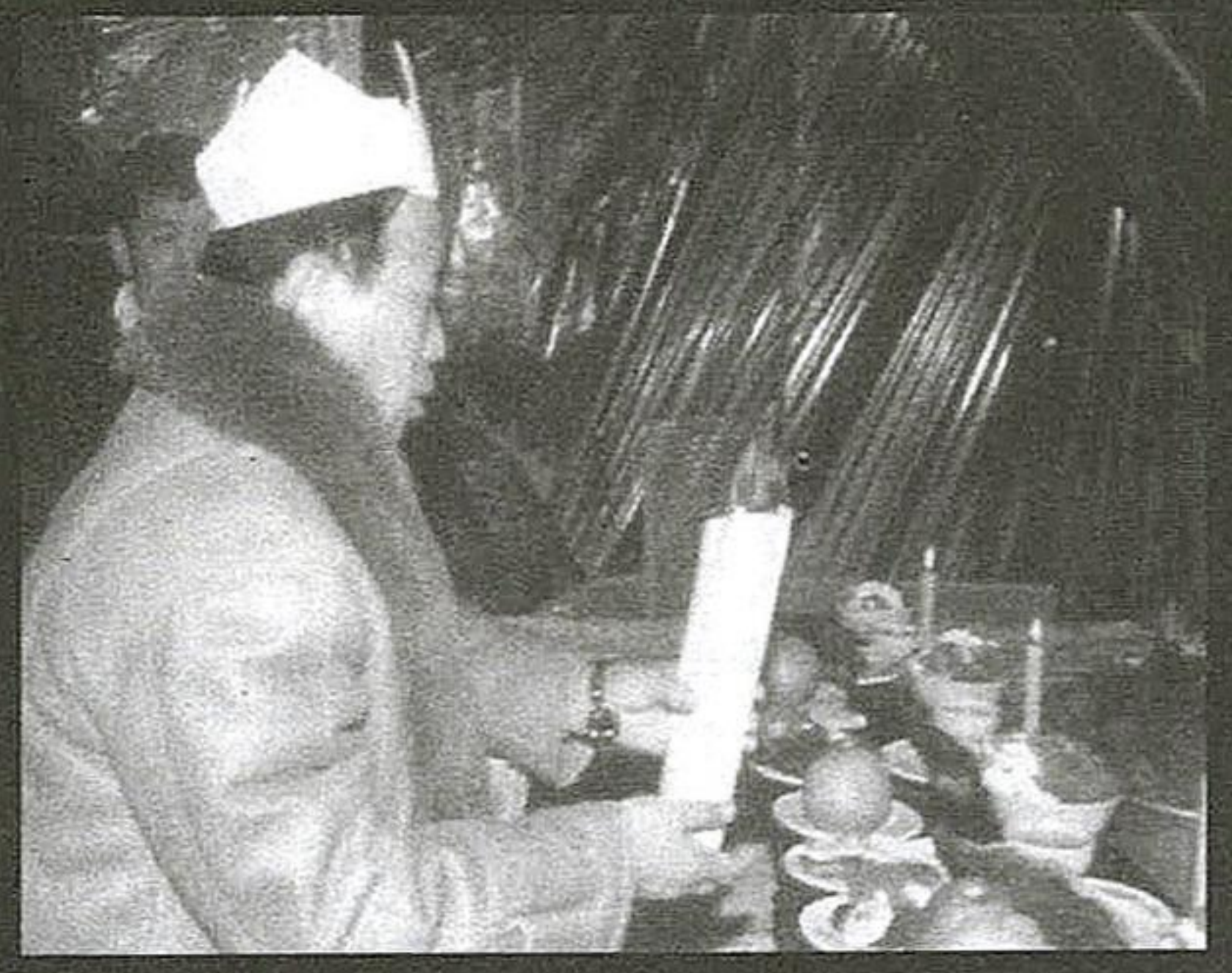
▶ 뱃고사 후에 앞바다를 선회하는 선박 (1970년대)



▶ 거리굿 꽃반(불발기 쌀)모습



▶ 거리굿 제물 진설 모습



▶ 거리굿에서 소지 올리는 모습

▶ 13 POTO ■ 27fream ▶ 4x6 ▶ 13

POTO ■ 27fream ▶ 4x6





▶ 거리곳에서 길지와 제물전달 및 축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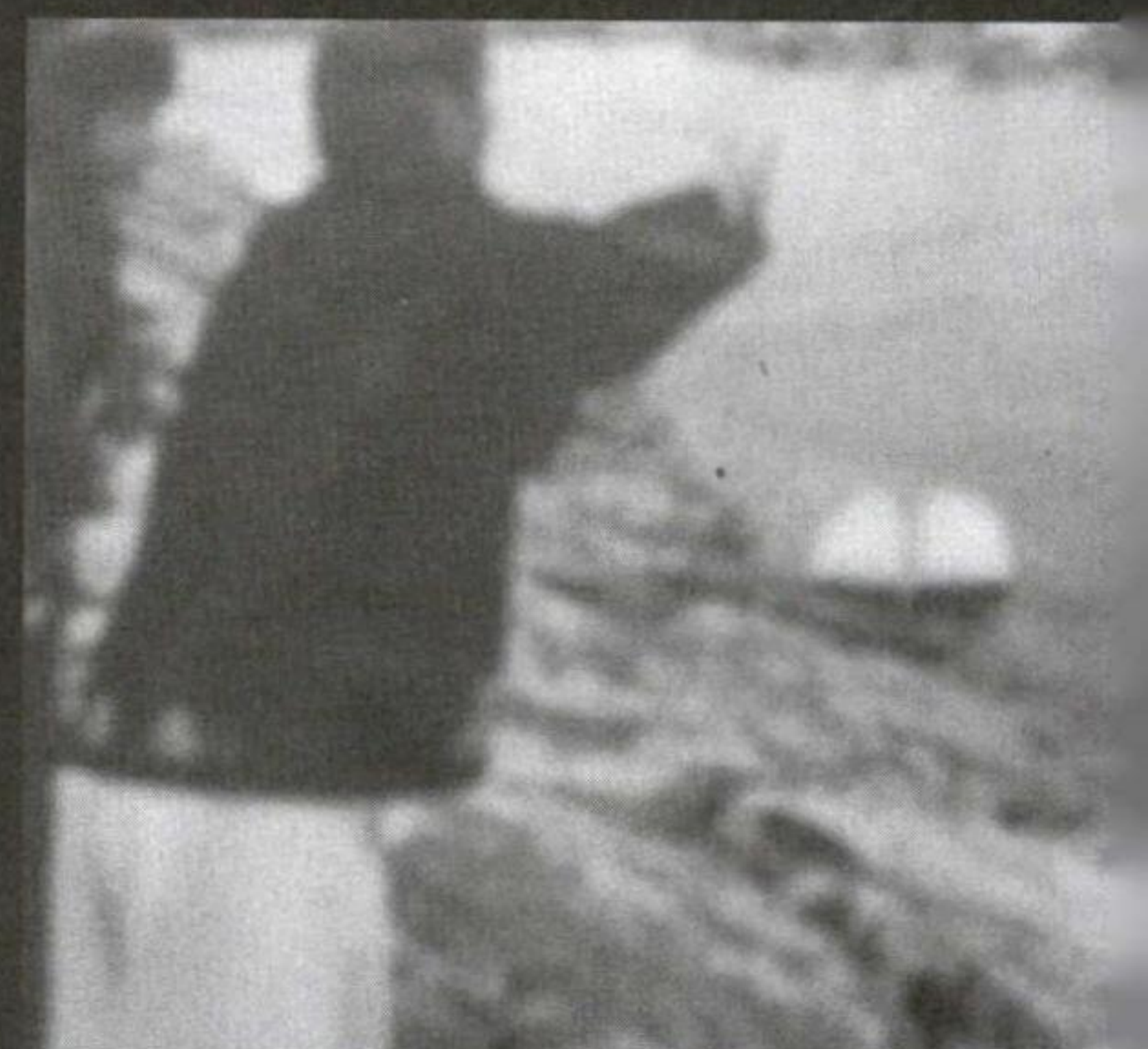
▶ 13 POTO ■ 27fream ▶ 4x6 ▶ 13 POTO ■ 27fream ▶ 4x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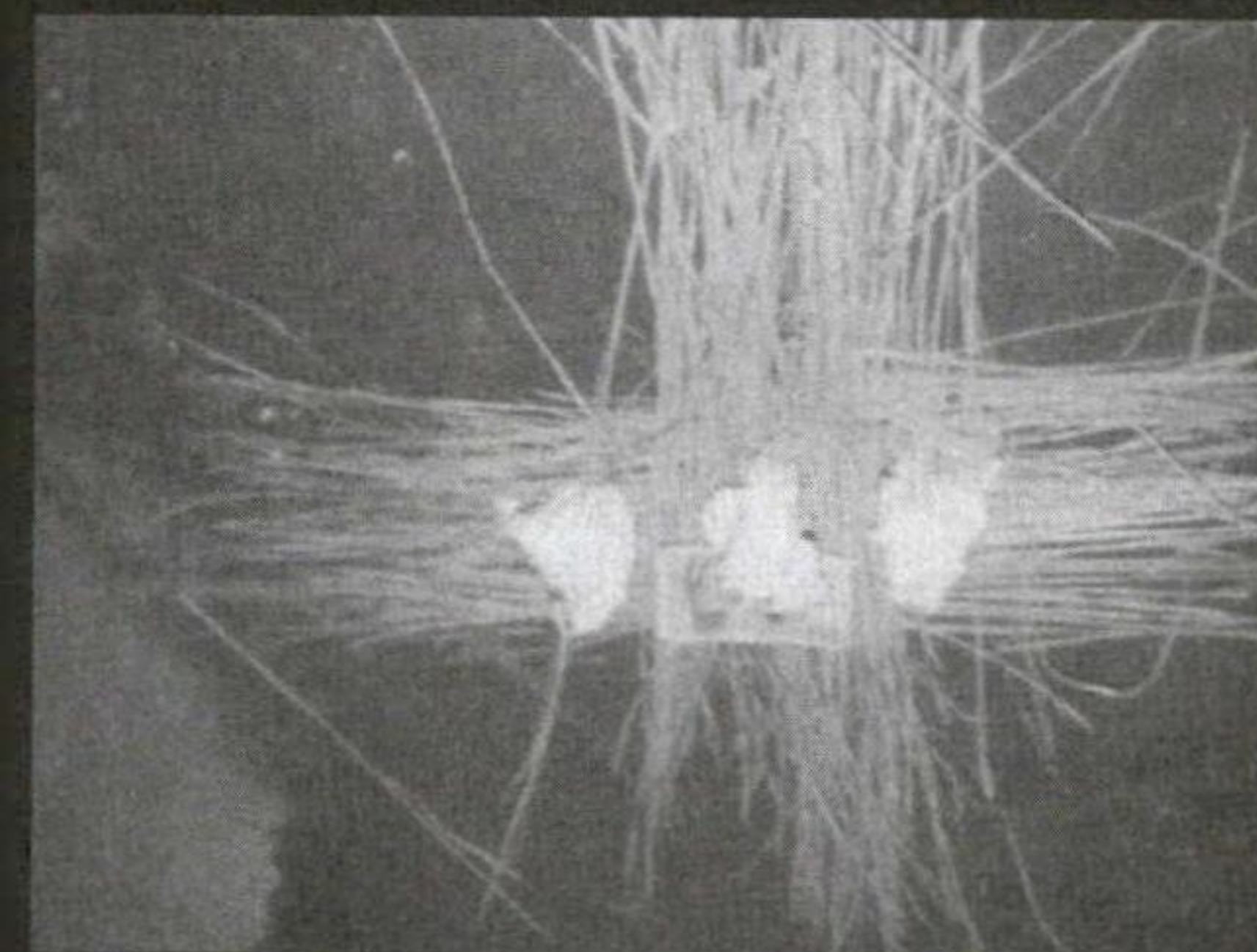
▶ 거리곳에서 쌀점 보는 모습



▶ 거리곳에서 사살막이 모습



▶ 거리곳에서 사살막이 모습



▶ 거리제 모습 준비



▶ 거리제 짐불 놓는 모습



▶ 거리곳에서 축원 모습

▶ 13 POTO ■ 27fream ▶ 4x6 ▶ 13 POTO ■ 27fream ▶ 4x6

2) 2007년 당제모습



▶ 뱃기가 걸린 풍어제당 주변

▶ 13 POTO ■ 27fream ▶ 4x6 ▶ 13 POTO ■ 27fream ▶ 4x6



▶ 방문객들의 재배모습



▶ 제물 진설 모습



▶ 축원 모습



▶ 길지와 복잔받는 모습



▶ 길지와 복잔 받는 모습



▶ 길지와 복잔 받는 모습

▶ 13 POTO ■ 27fream ▶ 4x6 ▶ 13 POTO ■ 27fream ▶ 4x6



▶ 길지와 복잔 받는 모습

▶ 13

POTO



27fream

▶ 4x6

▶ 13

P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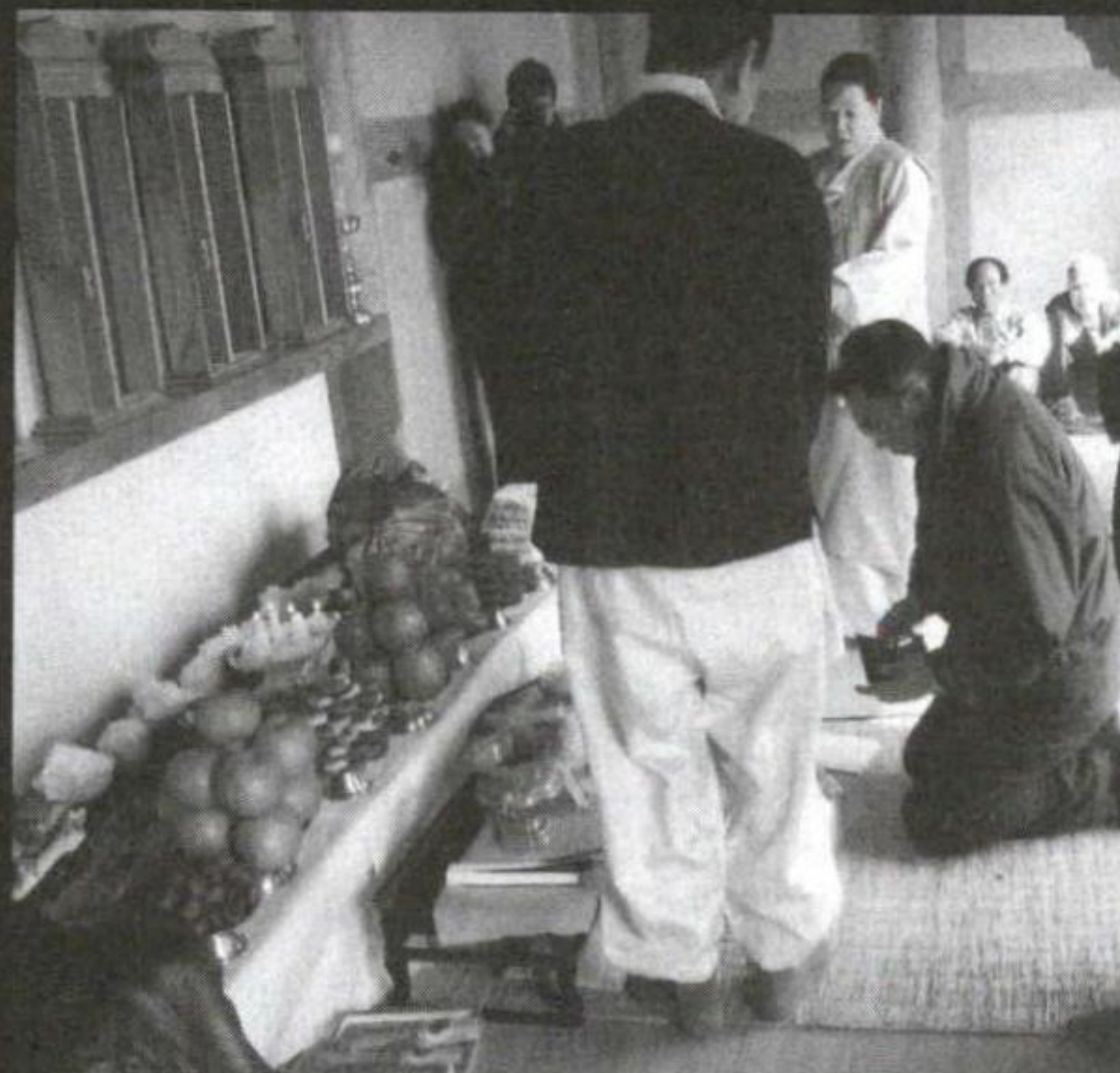


27fream

▶ 4x6



▶ 길지와 복잔 받는 모습



▶ 길지와 복잔 받는 모습



▶ 길지에 싸인 떡을 나눠 먹는 모습

▶ 13

POTO



27fream

▶ 4x6

▶ 13

POTO



27fream

▶ 4x6

13

POTO



27fream

▶ 4 × 6

▶ 13

P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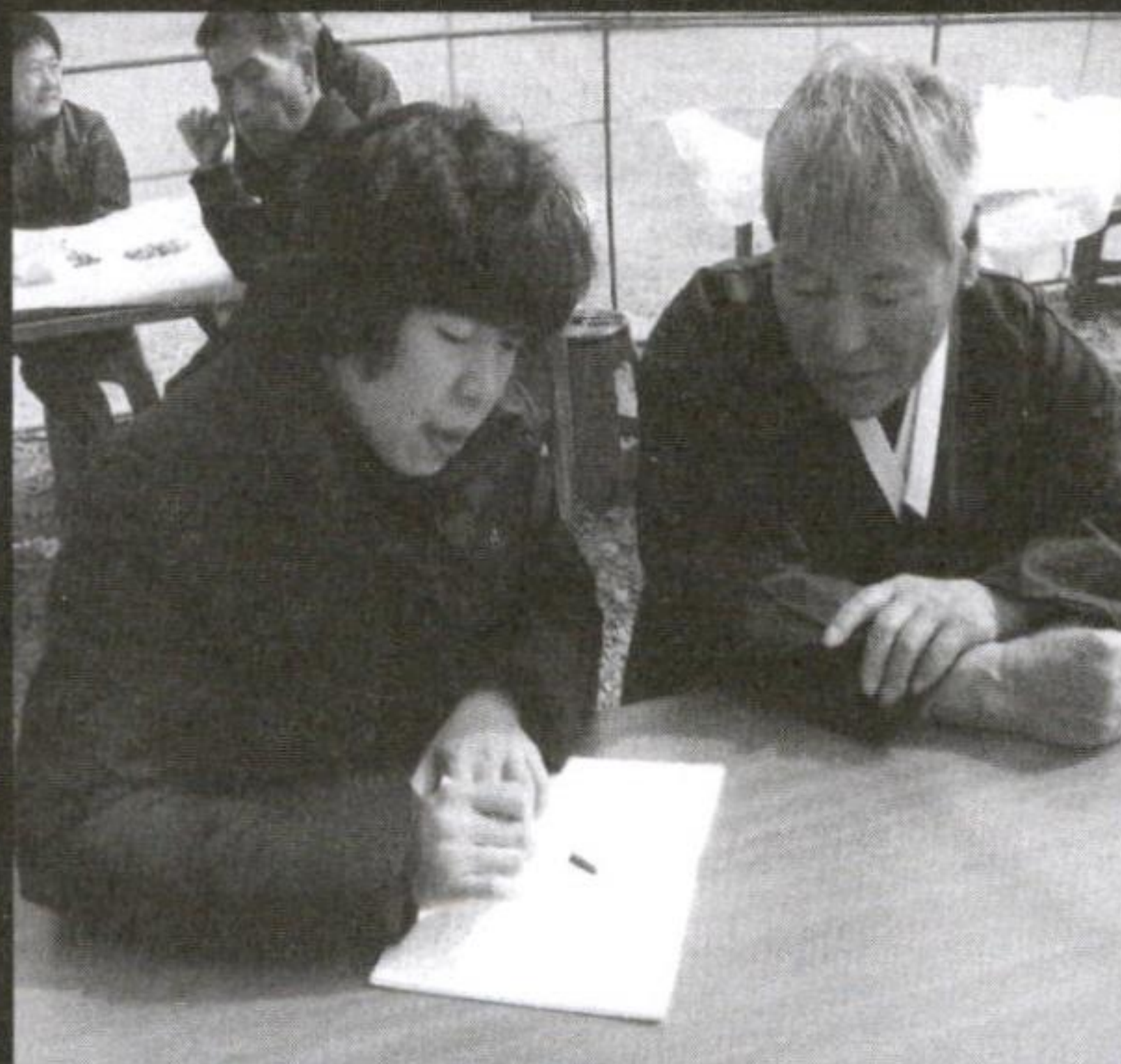


27fream

▶ 4 × 6



▶ 마을 아낙네들



▶ 당산제를 설명하는 주민(민용복 옹)



▶ 풍어제당과 당산모습



▶ 풍어제단 앞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길

▶ 13

POTO



27fream

▶ 4 × 6

▶ 13

POTO



27fream

▶ 4 × 6

### | 참고문헌 |

1. 이관호, 대동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서해안 풍어제의 마지막 보루 수룡동 당제 (堂祭), 수룡동민속문화보존회, 2001
2. 최운식·김정현, 홍성의 마을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9
3. 김정현, 수룡동당산풍어제, 홍성문화원, 1999

### | 김정현 약력 |

- 충남 홍성 출생, 홍성고등학교 졸업
-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석사
- 동화작가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게 밝혀주는 ——



HONGSEONG CULTURAL CENTER

• 인쇄/발행일 2008.12 • 발행인 전용택 • 펴낸곳 홍성문화원 • 편집디자인 김기연, 조창희 • 인쇄처 조양인쇄사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TEL. 041-632-3613 E-mail hongsung3613@hanmail.net